

연구보고서  
2006-08



##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충청남도 대응방안

박근수 · 이인배 · 강영주

연구보고서 2006-08

#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충청남도 대응방안

박근수 · 이인배 · 강영주

#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충청남도 대응방안

박근수 · 이인배 · 강영주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북경올림픽 추진계획 .....	3
1. 2008 북경올림픽 개요 .....	3
2. 2008 북경올림픽 추진계획 .....	4
제 3 장 스포츠관광객의 특징과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 .....	33
1. 스포츠관광객의 특징 .....	33
2.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 .....	35
1) 개최국가와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 .....	35
2) 북경올림픽 유치가 한국과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 .....	36
제 4 장 산업분야 대응방안 .....	38
1. 충청남도 산업현황 .....	38
1) 지역경제 일반현황 .....	38
2) 지역 산업구조 .....	39
3) 산업별 집적 현황 .....	41
4) 해외투자유치 現況 .....	45



2. 충청남도 산업분야 대응방안 .....	47
1) 수출진흥전략 .....	47
2) 親中 우호협력 전략 .....	49
3) 해외투자유치 전략 .....	51
<b>제 5 장   관광분야 대응방안 .....</b>	<b>53</b>
1.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현황 .....	53
1)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와 관광전망 .....	53
2) 환황해권내 관광산업의 현황 .....	55
3)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문제점 .....	57
4)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과제 .....	58
2. 충청남도 관광산업현황 .....	59
1) 충청남도 방문 외래관광객 현황 .....	59
2) 충청남도 기반시설과 관광개발계획 .....	60
3. 충청남도 관광산업 대응방안 .....	64
1) 관광상품 개발 분야 .....	64
(1) 한국-중국-일본 연계 관광상품 개발 .....	65
(2) 충청남도-대전-충청북도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	65
(3) 충청남도의 시군 지자체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	66
(4) 여행사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	67
(5) 충청남도의 특색있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 .....	67
2) 관광정책 분야 .....	68
(1) 한국-중국-일본 관광협력네트워크개발 정책 .....	68
(2) 충청남도-대전-충청북도 관광협력네트워크개발 정책 .....	68
(3) 2008 북경올림픽 행사기간중/행사기간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	69
(4) 민간사업자의 해외홍보활동 지원 .....	70
(5) 여행사 인센티브제도 도입 .....	71
(6) 관광숙박 대책 마련 .....	71

3) 관광홍보 분야 .....	71
(1) 한국-중국의 공동홍보 전략 .....	71
(2) 스포츠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충청남도 관광상품 홍보 전략 .....	72
(3) 인터넷 홍보 강화 .....	73
4) 관광교통 분야 .....	73
(1) 다양한 관광 접근로 개발 .....	73
(2) 한국-중국-일본 크루즈 해양관광상품 개발 .....	74
 제 6 장   결   론 .....	 75

## 표 목 차

<표 3-1> 메가이벤트의 국제스포츠 관광시장별 특성과 요구사항 .....	34
<표 3-2> 역대 월드컵 수익현황 .....	35
<표 4-1> 충청남도 경제일반 현황 .....	39
<표 4-2>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	40
<표 4-3> 충남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	41
<표 4-4> 충남지역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	44
<표 4-5> 연도별 투자현황 .....	45
<표 4-6> 유형별 투자현황 .....	45
<표 4-7> 국가별 투자현황 .....	46
<표 4-8> 업종별 투자실적 .....	46
<표 5-1> 세계 및 동북아시아의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 .....	54
<표 5-2> 동북아시아 역내관광객 성장전망(1997-2020) .....	55
<표 5-3> 세계 지역별 관광객수 .....	56
<표 5-4> 환황해권 도시간 협력을 위한 협의사항 .....	58
<표 5-5>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	59
<표 5-6> 중국 진출을 위한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 .....	60
<표 5-7> 충청남도 문화관광개발계획 .....	61
<표 5-8> 충청남도 5대 권역과 대상지역 .....	63

## 그 립 목 차

<그림 4-1> 충남 전략산업의 집적지 및 확장경로 .....	43
<그림 5-1>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 .....	54
<그림 5-2> 한국-중국-일본 3국간 역내 관광흐름(1990-1997년) .....	56
<그림 5-3> 환황해권내 항공교통망 현황 .....	57
<그림 5-4> 환황해권내 해상교통망 현황 .....	58
<그림 5-5> 충청남도 5대 권역과 대상지역 .....	64

# 제 1 장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2001년 7월 13일 모스크바 IOC총회에서 북경올림픽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제 29회 올림픽은 2008년 북경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북경과 중국 주요 도시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중국의 개혁강화, 대외개방확대, 국제규범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북경올림픽개최를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연계하고 중국의 체육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경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중심으로 총338억달러(2,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러한 투자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정석, 2002).

북경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가 개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경우 행사를 통한 한국에서의 파급효과는 약 5조 3,357억원으로 2000년 경상 GDP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였다 (이인배, 2001).

과거 올림픽의 파급효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26억달러,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이 35억달러,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 65억달러 규모로 분석된다. 북경올림픽의 특수으로 인하여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와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한국이 북경올림픽 특수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잠재성이 있다.

충청남도는 서해안교통의 중심부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표어대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북경올림픽 특수의 효과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북경올림픽의 파급효과를 충청남도가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과 환황해권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대형이벤트의 파급효과와 스포츠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세부분야별로 제시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충청남도과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형이벤트의 파급효과와 스포츠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며,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접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 제 2 장 북경올림픽 추진계획

### 1. 2008 북경올림픽 개요

북경올림픽은 2001년 7월 13일 모스크바 IOC총회에서 북경으로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제29회 올림픽으로서 2008년 北京에서 개최되고 요트경기는 靑島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북경올림픽의 3대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올림픽으로서 환경보호·개선, 환경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며 둘째, 科技올림픽으로서 첨단신기술의 개발촉진 및 산업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인문올림픽으로서 중국문화를 고취하고 정신문화생활을 제고하는 것이 북경올림픽의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경올림픽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며, 둘째, 전국 및 수도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셋째, 개혁을 강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국제규범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넷째, 올림픽 개최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연계하며 다섯째, 중국의 체육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올림픽관련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북경올림픽 개최준비를 위한 투자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중심으로 총338억달러(2,800억元)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정석, 2002).

- 교통·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초건설비 : 217억달러(1,800억元)
- 녹화,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 86억달러(713억元)
- 경기장 및 관련시설 건설 : 21억달러(170억元)
- 운영비 : 14억달러(117억元)

## 2. 2008 북경올림픽 추진계획 (최정석, 2002)<sup>1)</sup>

북경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확한 영도와 전국 각 민족의 인민과 해외중국인, 화교 및 국제친구들의 열정적인 지지아래 부단한 노력으로 2001년 7월 13일에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함으로써 북경과 전국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게 되었다. 북경시는 올림픽개최로 특징지어지는 가속 발전시기에 진입하게 되고, 올림픽은 10·5계획의 순조로운 완성과 수도의 新三步走 발전전략 실현 및 생산성 극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가장 특출한 올림픽 개최약속을 실현하고 올림픽의 각종 계획업무를 지도·통일적으로 계획·처리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한다.

### I) 총체적 전략 구상

#### (1) 지도사상

- 지도사상 : 강택민 동지의 3개 대표론을 중요사상으로 하여 중앙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관한 지시정신을 지도·관철한다.
- “신북경, 신올림픽”을 주제로 하여 “녹색올림픽, 과학기술올림픽, 인문올림픽”의 이념을 돌출시킨다.
- 근검절약을 유지하고, 수도경제발전과 도시번영과 사회진보를 전면적으로 촉진하여 중국과 세계체육을 위해 독특한 유산을 남기며 중화민족의 번영과 번창을 위하여 공헌한다.
- 2008년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녹색올림픽, 과학기술올림픽, 인문올림픽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

1) 본 내용은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서 2002년 3월 발표한 내용을 주중한국대사관이 번역한 내용으로 최정석 (2002)의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음.



### ① 綠色 올림픽

환경보호를 올림픽 시설의 계획 및 건설의 첫째조건으로 삼고 엄격한 생태환경기준과 계통의 보장제도를 제정한다. 환경보호 기술과 수단을 광범하게 채용하고 대규모, 다방면의 환경처리와 도시·농촌의 녹화·미화 및 환경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사회의 환경보전 의식을 강화하고 공중이 자발적으로 녹색소비를 선택하고 각종 생태환경 개선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취하며, 수도의 환경수준을 큰 폭으로 제고시켜 생태 도시를 건설한다.

### ② 科技 올림픽

최신 과학기술 발전을 긴밀하게 결합하고 전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창조성과를 집대성하여 높은 과학기술적 수준을 함양한 성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북경의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의 성과를 산업화하고 인민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응용하도록 함으로써 북경 올림픽이 첨단신기술의 성과와 실력을 과시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한다.

### ③ 人文 올림픽

올림픽 정신을 보급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고취하며, 역사문화 명승지로서 북경의 면모와 시민의 양호한 정신적인 풍모를 펼쳐보이고, 중국과 외국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각 국민들간의 이해, 신임 및 우의를 가일층 심화시킨다. 월등한 '인간 본위'와 운동원 중심주의에 의거하여 올림픽에 부합되는 자연과 인문환경을 부지런히 건설하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림픽 이념에 따르고 올림픽 개최를 大綱으로 하여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전체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청소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한다. 전국 인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기초로 문화체육사업의 번영·발전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자긍심을 높인다.

## (2) 전략적 목표

### 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 개최

13억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올림픽 정신이 최대한으로 광범위하게 고양되고 전파되도록 한다. 체육시설은 올림픽이 요구하는 각종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

고, 주체육장 및 중요 체육장과 체육관은 시대를 대표하는 일류수준의 체육건축 우수작품으로 건설한다. 경기조직의 업무는 선수들을 위해 양호한 경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효율적이고 질서가 있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 각종 서비스는 '인간본위'를 실현하고 주도면밀하며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다.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최신 첨단기술의 성과를 채용한다. 문화활동에 있어서는 중화문명의 넓고 정치하여 심오하며 무궁한 매력을 실현함으로써 동서방 문화교류와 융합의 광활한 무대가 되도록 한다. 안전보위부서는 엄밀하고 힘있는 가운데 분위기는 부드럽게 하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안녕질서를 달성한다. 조직관리와 시장운영에 있어서는 창조성을 중시하며 양호한 경제효율을 확보한다.

## ② 전국 및 수도의 현대화 건설 촉진

올림픽의 전국경제발전 촉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우리나라 현대화를 가속화시킨다. 최선을 다해 수도경제발전과 도시건설, 사회진보 및 인민생활개선 등 다방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2008년까지는 전시의 1인당 평균소득이 6,000달러 이상에 달하게 한다. 경제현대화, 도시현대화 및 사회현대화의 수준을 대대적으로 제고시키고 현대적인 국제대도시의 기본골격을 구축하여 북경이 진일보 참신한 발전단계에 도달하도록 한다.

## ③ 수도의 개혁혁신 및 전면개방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

올림픽 사업을 Carrier로 하여 개혁을 강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공정한 시장진입과 경쟁을 도입하여 국제규범에 일치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관리체제와 관리방법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정책·법규체제를 완벽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고급인력을 육성, 채용하고 국제적인 선진 경영이념과 관리경험을 배우고 참고하며 국내외의 장점을 널리 흡수한다. 정부사업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개방, 공정, 고효율, 청렴을 견지하고 실용정신을 높이며 업무처리효율을 제고하여 올림픽 준비사업과 프로젝트 운영이 체제, 메커니즘, 관리 혁신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④ 우리나라 체육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적극 실현

국가의 체육경기과학의 연구·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좋은 소질을 갖춘 경기조직관리 인재를 육성한다. 과학적인 인재선발, 훈련방면의 우수한 연구원과 교습훈련요원을 육성하고, 일련의 운동경기에서 새로운 인재를 배양한다. 2008년 올림픽의 모든 주요종목과 더 많은 기타 종목에 참여하여 금매달 획득 총수의 신기록을 달성하고 종합적 실력도 뚜렷이 향상시킨다. 全民健身計劃綱要를 철저히 시행하고, 전체인민의 신체소질과 건강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체육법제 정비, 부단한 개혁의 심화와 체육의 사회화를 강화·가속화함으로써, 체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 (3) 전략방침

#### ① 올림픽 개최를 전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결합시켜 나감

전국 각지가 올림픽 기회를 공동으로 향유토록 하고, 각 省市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전국민이 적극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국가 각부와 각 위원회의 협조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확보하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지를 강화한다.

#### ② 올림픽 개최를 현대화 건설 추진과 결합시켜 나감

‘올림픽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을 통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것’을 견지하고, 북경시의 ‘10·5계획’ 및 ‘新三步走’ 발전전략에 따라 수도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 하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풍부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한다.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는 근검절약을 견지하고 체육시설의 경기후 이용방안을 중시하며, 투자효율을 높이고 중복건설이 없도록 한다.

#### ③ 올림픽개최를 개방확대와 결합시켜 나감

전국과 전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활짝 열고 전면적으로 대내외개방을 확대한다. 각종 성공경험과 방법을 배우고 참고하며, 국제표준과 현대화 척도의 요구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여, 올림픽 개최를 통해 북경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세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개혁개방의 모습을 과시한다.

④ 올림픽개최를 정신문명 건설과 결합시켜 나감

<공민도덕건설실시강요>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실시하며, 사회생활중의 비문명적인 행위를 극복한다. 문명적이고 건강하며 과학적인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중국과 외국간의 언어교류환경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과학문화 자질 및 문명의 정도를 제고한다. 각종 창구업무의 문화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높이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단결·안정되고, 진보적이며 상서로운 문명환경을 조성한다.

⑤ 올림픽개최를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결합시켜 나감

‘인본위주’를 견지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통해 경제발전과 도시건설 및 관리를 촉진하고 대중들이 더 많은 실리를 향유하게 한다. 올림픽 준비과정이 확실히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하고, 또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한다.

(4) 전략적 단계

① 사전준비단계: 2001.12 - 2003.6

- 《올림픽추진계획》을 제정·실행, 올림픽 조직 영도기구 구성, 올림픽 경기장·시설의 사전사업과 시공 준비, 환경보호시설·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관광시설의 착공, 시장개발업무의 개시

② 본격적인 건설 단계: 2003.7-2006.6

- “10.5” 계획이 정한 각종 임무 전면 달성
- 올림픽 경기장과 기타 관련시설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 2006년 6월까지 올림픽 경기장·시설의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각종 준비사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됨.

③ 운영 완벽화 단계: 2006.7-2008년 올림픽 개막

- 각종 건설사업을 전부 완성하고 모든 경기장과 시설을 올림픽 요구에 도달시킴.
- 건설사업과 각종 준비사업에 대한 점검·조정·테스트와 시운행을 통하여 정상사용을 확보.
- 조직업무, 안전보위 업무 및 각종 봉사업무를 전부 완료.

## 2)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시설의 건설

### (1) 원칙, 내용과 분포

#### ① 기본원칙

첫째, 경기장의 계획설계는 올림픽 체육경기에 유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사이후의 이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행사기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의 기술요구를 만족하는 전제하에 올림픽 경기장의 사회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광범위한 시민의 일상운동의 수요와 결부시키는 한편, 행사이후의 문화, 체육, 전시회, 상업무역, 관광, 오락 등 활동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근검절약하고 사치와 낭비를 금지해야 한다. 모든 경기장 시설의 건설규모, 위치, 수량에 대하여 일일이 논증하고 기존의 경기장을 이용하여 개축·증축할 수 있는 것은 새로 건설하지 않으며 임시 경기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구성 경기장으로 하지 않는다.

셋째, 체육건축 정품을 만든다. 지속발전의 개념을 충분히 나타내고 건축기술, 예술, 환경보호와의 결합을 적극 모색하여 수도에 독특한 올림픽 유산을 남겨야 한다.

#### ② 건설내용

올림픽 경기장은 37개로 계획한다. 그 중 32개는 북경지역에 5개는 북경외 지역에 배치한다. 북경의 32개 경기장중 19개(6개의 임시경기장 포함)는 신축하고 13개는 개축 또는 증축한다. 이외에도 59개 훈련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부대적으로 장애인올림픽 전용시설을 건설한다.

북경외 지역의 5개 경기장 사업중 칭따오(靑島) 국제범선센터, 톈진(天津) 체육장, 톈황따오(秦皇島) 체육장은 신축사업이고, 선양(瀋陽) 우리허(五里河) 체육장, 상하이(上海) 체육장은 개조사업이다.

### ③ 분포방안

"1개 중심 + 3개 구역"의 분포를 이룬다. 올림픽공원은 올림픽개최의 "주된 중심구"로서 공원 내에 13개 경기장이 있다. "서부단지" 내에는 9개 경기장이 있는데 그 중 신축되는 우커쑹(五棵松)문화체육중심은 행사이후 북경시 서남부 거주민의 문화체육활동 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대학구"에는 수도체육관 등 4개 경기장이 입지하고 행사이후 대학 및 단지의 문화체육활동 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북부관광구"에는 북경향촌경마장 등 2개 경기장을 두어 행사이후 시 근교 관광업 발전에 유리하도록 한다. 이외 기타 지역에 공인체육장 등 4개 경기장을 개축·증축하여 인근지역 거주민의 문화체육활동에 여건을 마련해준다.

### (2) 올림픽공원 계획설계방안

올림픽공원은 도시 중심축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이 1,135헥타르로서 680헥타르의 삼림공원과 405헥타르의 올림픽 중심구가 포함된다. 올림픽공원은 아세안을 올림픽경기장과 부대시설의 덕택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상업·문화 등 부대 서비스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올림픽 공원의 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과 시민물질문화 생활의 수요를 고려하여 체육경기시합, 회의·전람, 문화오락 및 여가·구매가 일체가 되고, 공간이 넓고, 녹지로 둘러싸인, 환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 공공활동의 중심이 되게 한다.

#### ○ 올림픽공원내 대표적인 신축 경기장

- 국가체육장 : 8만명 수용. 개(폐)막식, 육상경기, 축구결승전 등 행사와 경기에 활용 가능.
- 국가체육관 : 1.8만명 수용. 체조경기, 핸드볼과 배구 결승전 개최 가능. 다기능의 공공장소로 설계할 수 있음.
- 국가수영중심 : 1.7만명 수용. 수영항목의 메인 경기장이며 올림픽 이후 공공운동장소로 활용 가능.

- 기타 올림픽공원내에 건설 예정인 일부 관련 시설
  - 올림픽촌 : 운동원 아파트 36만㎡, 올림픽 개최기간 각 국의 운동원, 지도원, 수행 체육관원 주거용으로 사용, 촌내 부대시설 완비. 행사 이후에는 사회에 판매.
  - 그 외에도 일부 건물을 건설하여 올림픽 개최기간 탁구, 배드민턴, 펜싱, 레슬링 경기장과 메인 뉴스중심, 국제방송TV중심으로 사용. 행사 이후에는 수도 청소년 궁, 도시계획전시관 등 전시중심과 문화시설로 활용. 이외에 호텔, 회의용, 상업용, 사무용 등 기타 서비스시설도 건설할 계획임.

### (3) 경기장의 설계구상

- 경기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고 사치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구상
  - 2008년 국제올림픽 하계운동연합회의 요구에 부합되고 국제 단일항목 체육협회의 요구에 부합되며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되고 장애인 올림픽의 특수한 사용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품질을 중요시하고 투자를 절약한다.
- 하이테크를 널리 응용하고 지속발전을 구현함
  - 데이터 네트워크기술, 원격 음성전송기술 및 영상현시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올림픽행사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정에너지와 환경보호자재를 널리 사용하고 雨水 수집, 中水이용, 자연환기, 자연채광 등 에너지절약기술을 널리 응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한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행사 후 이용에 유리하게 함
  - 경기장 설계는 모든 행사 참석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환경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요구를 최대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경기장과 기반시설, 부대시설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각종 기능이 종합적으로 조화되도록 하며 건축공간의 가변성과 기능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행사후의 이용과 시장운영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교통계획을 세밀하게 제정하여 모든 상황에서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올림픽의 특수요구를 충분히 고려

- 2008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는 장애인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일보 조성하는 좋은 계기이다.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 시설의 건설은 장애인 운동원과 장애인 관객의 특수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평등, 참여, 공동향유”의 목표 실현에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장애인 올림픽은 올림픽 행사의 18개 경기장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장 설계는 장애인올림픽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장애 설계를 실시한다. 한편 장애인들의 특수요구를 감안, 광전·음향 등 설비를 갖추어 그들의 각종 경기 참여에 편의를 제공하며 올림픽촌의 모든 관련시설도 무장애설계를 채택한다.

### 3) 생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 건설

#### (1) 환경오염의 예방과 정비

대기오염의 예방·정비와 식수원 보호를 중점으로 하여 경제구조 조정, 양질의 청정 에너지 확대, 오염물 배출표준 엄격화, 생태보호와 건설 강화 등 조치를 통하여 도시의 환경수준과 생태상황의 뚜렷한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2008년 도시내 대기중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오존의 지표가 WHO의 요구에 도달해야 하며 미립물질의 농도가 선진국 대도시 수준에 도달하여 올림픽 개최의 수요를 만족해야 한다.

○ 메탄형 오염의 예방과 정비

- 도시의 에너지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천연가스, 전력 등 양질의 청정에너지를 적극 도입·발전시킨다. 섬서성 북부의 천연가스를 북경에 도입하는 두번째 수송파이프와 부대시설을 건설한다. 전력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새로 증가되는 전기사용부하는 주로 외부의 전력공급에 의뢰하도록 하며 도심구역의 전력망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전력망을 개조하여 전력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북경 제3 열병합발전소 건설, 까오징(高井)발전소의 가스사용사업을 추진하고



차오차오(草橋) 등 8개의 가스열병합발전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냉방, 열, 전기의 복합공급을 실현한다. 지열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와 생물질에너지 등 신 에너지를 적극 개발·이용하고 에너지절약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2008년 전 市の 천연가스 연간 공급능력은 50억m<sup>3</sup>에 달하고 석탄과 코크스가 최종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점하는 비중은 20% 이하로 감소되며 시내의 열 공급면적은 1억m<sup>2</sup> 정도에 도달한다.

○ 엔진차량 배기오염물로 인한 오염의 예방과 정비

- 2003년부터 새 차의 오염물 배출에 대하여 유럽 2호에 상당한 표준을 적용하고 2008년 이전에 새 차의 오염물 배출에 대하여 유럽 3호에 상당한 표준을 적용한다. 폐차제도와 점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환경보호마크 관리를 실행하며 환경보호 관리기관과 교통관리기관의 법 합동집행을 강화한다. 공공버스와 택시에 LNG 등 청정연료 적용기술을 적극 보급·응용하고 전동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기술을 적극 보급한다.

○ 시내구역 먼지오염의 예방과 정비

- 모든 시공현장은 반드시 먼지오염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환경보호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4환로 이내에서 산적화물 운수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밀폐운수를 실시하며 2005년까지 전 市 계획구역내의 노출지면을 소멸하며 시내구역 주요 차량선의 기계화 청소와 물 살포율이 100%에 도달한다.

○ 공업오염의 예방과 정비

-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를 실시하여 각종 공업오염물의 배출을 감소하고 중점기업을 대상으로 청정생산과 ISO14000 환경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전면 실행한다. 야금, 화학공업, 전력, 콘크리트 등 분야의 생산오염 통제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시내구역내 기업을 이전·조정하여 2008년 이전에 동남부 근교의 화학공업단지와 4환로 이내에 있는 200개 전후의 오염기업을 조정·이전시키고 수도강철집단은 생산량을 200만톤 감축하고 구조조정목표를 달성한다.

○ 식수원 보호

- 상류지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21세기초(2001-2005년) 수도 수자원의 지속이용계획》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한다. 엄격한 수자원 보호조치를 실행하여 미원, 판팅저수지의 상류와 저수지 내의 물의 수질을 확보하고 판팅저수지의 식수원 기능을 기본적으로 회복한다. 경제구조조정, 절수, 농업오염정비, 도시 하수처리시스템의 완벽화 등 사업을 상호 결합하여 지하수 식수원을 보호한다.

○ 물 오염의 정비

- 루꺼우차오(盧溝橋), 칭허(清河), 샤오홍먼(小紅門) 등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완벽한 도시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며 2008년 시내구역 하수처리율이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시내 도시수계와 윈위허(溫榆河) 등 주요 수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주요 수로 오수단차집 파이프를 조속히 건설하며 옛 도시 재개발과 결합하여 배수시스템을 새로 개조한다.

○ 고체폐기물 관리를 강화

- 공업 고체폐기물, 상업쓰레기와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도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집·회수·처리한다.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 시설의 건설과 근교의 청전(城鎮), 춘전(村鎮) 쓰레기처리시설과 소각장 건설을 가속화한다. 까오안툰(高安屯) 쓰레기 소각장, 자오자퍼(焦家坡) 쓰레기 매립장 등 공사를 완성한다. 2005년까지 시내구역과 위성도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전부 무해화처리를 한다. 엄격한 위험폐기물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위험폐기물 전부가 안전처리를 거치도록 한다.

○ 소음, 전자파방사, 방사성오염의 예방과 정비

- 도시교통, 시공현장,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계획·설계과정에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겪는 고통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야간에 시내에 들어오는 대형화물차와 농업용 원동기 차량의 주행구간과 속도를 규제한다. 기존의 전자파 방사오염과 방사성원, 방사성폐기물의

신고등록과 신축 사업의 심사·비준업무를 강화하며 光오염의 예방과 정비를 적극 모색·강화한다. 2008년 도시계획구역내 소음은 국제표준에 기본적으로 도달하고 전자파방사와 방사성 환경오염은 계속하여 국가표준에 부합된다.

○ 환경보호 신소재와 신공법을 적극 보급·응용

- 청정연료, 열 펌프, 태양에너지광 발전, 태양에너지 열수집, 연료건전지, 나노소재 등 기술을 적극 도입·개발·보급한다. 환경 과학연구, 측정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신소재를 이용하여 기존 설비와 공법을 개조하고 제품별 소모와 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한다.

(2) 생태환경건설

환경오염을 예방·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화하는 기초에서 조림녹화,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생태농업 건설을 중점으로 하여 수도의 양호한 생태기반을 조속히 구축한다. 2008년에는 청산, 벽수, 녹지, 푸른 하늘, 생태도시 건설의 목표에 도달한다.

○ 수도 녹색생태병풍 건설

- 2007년 全市 임목 피복율이 50%에 달하고 山區, 평원지역, 도시녹화격리지역의 3단계 녹색병풍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2005년 山區 녹화 10만헥타르를 완성하고 “5河10路”를 중점으로 하는 녹색통로 2.3만헥타르를 건설하며 1.25만헥타르의 도시 녹화격리지역을 건설한다.

○ 도시 녹화와 미화를 추진

- 도시 주간선, 거리, 水係의 녹화를 강화하고 기 완성된 시내구역의 225개 高標準 주요거리의 녹화·개조를 완성하며 입체녹화를 활발히 추진한다. 시내구역의 수면을 증가하고 수면 경관을 조성한다. 도심지역에 대규모 공공녹지(공원) 건설을 강화하고 교목을 위주로 하는 1만㎡ 이상의 대형녹지를 50개 건설한다. 근교 위성도시와 33개 중심 鎮의 녹화체계를 완벽화하고 2007년 모든 도시의 도시녹화피복율이 45%에 달하도록 노력한다.

○ 황사와 수토유실의 예방과 정비

- 2005년까지 현지의 황사피해를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3河2灘” 5대 황사피해 지역인 용평허(永定河), 차오빠이허(潮白河), 따샤오허(大沙河), 옌칭강주좡(延慶康莊), 창핑난커우(昌平南口)에 대한 정비를 완성한다. 2007년에는 잠재된 사막화 토지에 대한 정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국가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수도 생태권 건설과 황사 예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 지표수와 지하수 저수지의 깨끗한 수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강수와 재생수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 칭허(清河), 우자춘(吳家村), 지우시엔차오(酒仙橋) 등 7개 중수처리장을 건설하여 2008년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이용율이 50%에 달하도록 한다. 주거단지와 기관의 중수 재이용을 추진하고 지하수 채굴계획을 완벽화 하며 공농업의 지하수 사용량을 통제하여 지하수 수위를 점차 높인다. 增水期에는 단류와 회수관개를 적극 추진하여 지하수 자원을 보충, 보존한다. 국민의 수자원 절약의식을 높이고 물값 체계를 가일층 완벽화하며 절수기술과 조치를 적극 도입하고 절수도구의 사용을 보급하며 전 사회의 절수 적극성과 자각성을 불러일으킨다.

○ 중점지역의 생태보호와 건설 강화

- 미원저수지, 회이러우(懷柔)저수지, 관탕(官廳)저수지 등 중점 생태기능 보호구를 보호하고 생태파괴와 생태기능의 퇴화를 방지한다. 물, 토지, 삼림, 초지, 광산, 수산어업, 생물종과 관광 등 주요 자원개발구에 대하여 강제적 보호를 실행한다. 지하수 초과채굴이 심각한 지역과 생태계통 취약지역에 채굴금지구역, 개간금지구역과 벌목금지구역을 지정한다. 기존의 습지 생태계통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역에 인공습지를 건설한다. 자연보호구의 건설을 강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자연 생태계통, 야생 동식물과 유전자 자원을 보호한다.

○ 생태농업 건설 강화

- 생태 시범구역과 생태농업縣의 건설을 강화하고 고효율의 생태농업을 발전시킨다. 농업작물의 재배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논밭 경작기술을 도입하여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통제한다. 축목 양식업을 이전·조정하고 오염정비 계획을 제정하며 유기식품을 발전시키고 식용 농산품 안전생산체계를 완벽화 한다.

○ 도시환경을 전면 정비

- 시민들의 원성이 높고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법 집행을 강화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각종 건물과 임시건물을 철거하고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全市의 도시농촌 생활쓰레기 수용시설을 건설, 완벽화하고 도시건물의 미화를 강화하여 도시의 녹화·미화 수준을 제고한다. 환경이 아름다운 거리와 단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도시농촌 연결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하여 도시농촌 연결지역의 환경상황과 관리수준이 시내구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 시민의 생태문명자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스스로 녹색소비를 선택하도록 제창한다.

- 전 사회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습관을 제창하고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며 녹색단지, 녹색상점, 녹색학교, 녹색기업, 녹색기관 건설활동을 널리 전개한다. 가정과 회사가 재활용물품을 사용하고 절수설비와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하며 쓰레기를 분류수집하고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창한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버스와 택시 기사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정비하여 차내 청결과 표준에 부합되는 배기량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 (3) 도시교통 건설과 관리

#### ○ 도시궤도교통

- 도시 궤도교통을 중점으로 하여 북경도시 경철, 지하철 빠통시엔(八通線), 지하철 5호선, 지하철 올림픽지선, 땡즈먼(東直門)-수도공항 쾌속궤도교통 등 공사를 시행한다. 2008년까지 全市의 궤도교통 거리는 148.5km 새로 늘어나고 궤도교통 총연장은 202km에 달하며 지하철이 도시 여객운수에서 점하는 비중이 10% 전후를 접하도록 노력한다.

#### ○ 공로

- 5환로, 6환로, 징밀루(京密路, 베이징-미원) 등 고속도로와 1급, 2급 도로공사를 완성하여 2008년 全市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718km, 공로의 총연장은 14,700km, 공로망 밀도는 87.3km/km<sup>2</sup>에 달하도록 한다.

#### ○ 도시내 도로

- 도시내 도로망 건설을 강화하여 환로, 통로선, 연락선으로 구성된 쾌속주간선 시스템을 조속히 완벽화한다. 舊도시 재개발과 결합하여 도시내 도로망 밀도를 높인다. 2007년 새로 건설 또는 개보수한 도시내 도로 연장은 318km에 달한다.

#### ○ 민항

- 국제와 국내 교통중심지의 이중기능을 구비한 대형 종합공항의 건설을 목표로 수도국제공항을 확장하여 올림픽과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 ○ 공중교통

- 공중교통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버스전용선을 늘리고 버스 운영노선을 완벽화한다. 땡즈먼(東直門), 시즈먼(西直門), 땡우위엔(動物園), 왕징(望京), 쓰웨이차오(四惠橋) 등 버스 중심지를 신축, 개축, 증축하여 시내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도시 인근과 아파트단지까지 이르는 분포가 합리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버스망을 구축한다.

○ 주차시설

- 주차장건설을 가속화하여 시내구역의 주차난 문제를 완화한다. 중점지역에 주차 유도시스템을 구축하고 궤도교통의 환승역과 대형 버스 중심역에 우선적으로 일정 수량의 동력차량과 자전거 공공주차장을 건설한다.

○ 교통관리

- 도심구역에서 제한적 교통조치를 취한다. 교통법규를 수립,완벽화하고 동력차량에 대한 관리와 주차관리를 강화하며 교통법 집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인다. ITS 지휘배치체계, 교통관리망 정보체계와 계통적인 교통안전관리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시내구역 교통관리의 현대화를 초보적으로 실현한다.

(4) 정보통신건설

도시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사이버북경”을 건설하는 동시에 “사이버 올림픽” 계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통신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며 양호한 정보환경을 마련하고 훌륭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에는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다양한, 언어장애가 없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북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에 중국의 정보화수준과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 정보통신 기반시설건설

- 기초가 되는 통신 파이프·전선·케이블을 통일적으로 계획·건설하고 전송통로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각종 올림픽 통신망 광(전기)케이블을 설치한다. 올림픽정보를 취급하는 대표적 건물을 계획·건설하여 각종 관련수요에 활용한다. 무선전신 주파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올림픽을 위한 주파수를 준비한다. 북경시 무선전신 관리기술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파수관리, 무선전신 신호측정, 방해분석과 무선전신 설비의 검사능력을 전면 제고한다. 공중 電磁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정화하여 각종 무선전신 통신설비의 확실

한 운행과 사용을 확보한다. 각종 선진적인 통신시설을 조속 건설하고 확실히 융통성 있고 확장 가능하고 재활용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광대역 디지털 통신시스템을 제공하며 세계 각국의 통신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림픽의 수요를 훌륭하게 만족한다.

○ 정보응용시스템의 구축

-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정보시스템, 시간과 점수 계산시스템, 점수처리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와 소프트웨어 설비를 구축·응용한다. 올림픽 관련 관리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올림픽을 위한 입장권, 관광, 기념품, 쇼핑, 프로젝트입찰, 구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올림픽의 “언어장애”를 적극 해결하여 행사 참석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준다. 지능카드기술을 이용하여 행사참석자 등록, 안전감별, 금액지불 등 과정에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지불망과 양호한 카드지불환경을 마련하고 올림픽 경기장시설의 지능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개성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핵심 정보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 고성능의 컴퓨터기술, 네트워크기술 등 핵심 정보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한다. 선진적인 성숙된 기술의 응용을 보급하고 핵심기술 기초사업을 가속화한다. 대형 체육정보시스템, 사이버 체육설비, 디지털 언론설비, 지능카드 및 관련시설 등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 4) 사회환경 건설

##### (1) 문화환경 건설

문화는 현대 올림픽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우리나라 5천년 전통문화의 우수한 성과와 북경의 역사문화명성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동방문화와 현대 올림픽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올림픽 정신에 새로운 내용을 주입해야 한다.

##### ○ 일련의 올림픽 문화주제행사 개최

-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과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를 내실 있게 조직·실행한다.

##### ○ 현대 문화시설의 건설과 개조

- 국가대극원, 국가도서관 2기공사, 중국미술관 2기공사, 중국과학기술관 3기공사, 수도박물관, CCTV 뉴빌딩, BTV 뉴빌딩 등 중점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아국 문화중심의 최신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올림픽 경기장의 문화적 품위를 높이고 일부 경기장은 행사 후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한다. 올림픽공원에 시민광장과 청소년 활동장소를 건설하여 문화기능을 충실히 한다.

##### ○ 역사문화명성의 모습을 보호·전시

- 舊皇城, 전통도시 中軸線, 25개 역사문화보호구, 중점문화재 보호기관, 역사적인 도시水係와 舊도시의 기본구조를 중점적으로 보호하여 옛 황도의 기본모습을 시현한다. 中軸線, 옛 황성, 차오웨이루(朝阜路), 꾸어쯔지앤지에(國子監街), 선차하이(什刹海)지역의 고대건물 개조를 실시하며 원명원 유적, 명나라 북경성벽 유적 등 문화고적을 수선한다. 장성, 고궁 등 유명한 세계 인류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며 옛도시 재개발과정에서 기존의 각종 지명의 역사, 내용, 사건 등에 대하여 원적보존, 일부 보존 또는 조각, 석각 등 수단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 양호한 문화관광환경을 창조

- 북경의 문화관광자원을 전면 조정하고 관광가, 관광명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며 자체특색이 있는 문화관광노선을 형성한다. 북경의 인문특색이 짙고, 올림픽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관광문화상품을 설계·개발하여 북경 관광브랜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특색있는 상업가의 건설을 강화하여 관광여행객과 운동원들에게 양호한 쇼핑장소와 환경을 제공한다.

○ 언론보도에 양호한 조건 마련

- 국내외 언론을 위하여 양호한 작업환경을 마련해주고 전면적이고 적시적인 정보와 일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올림픽 행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족단결 증진

- 黨의 민족정책, 종교정책과 북경시의 《소수민족 권익보장조례》를 전면 실시하여 전 시민의 민족단결의식을 높이고 각 민족의 올림픽 참여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북경 올림픽이 전국 각 민족의 명절이 되도록 한다. 올림픽기간 각 민족 운동원과 각 국 운동원의 종교습관을 존중하며 종교활동장소의 분포와 건설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안전위생 환경건설

안전보위 임무를 전면 달성하여 양호한 사회질서, 안전한 교통 및 소방보장 시스템, 안전한 의료위생 시스템, 세밀한 보장조치로 올림픽 안전을 보장한다.

○ 사회치안의 종합정비 강화

- “안전한 단지” 건설과 “과학기술에 의한 안전확보” 공정을 계속 실시하고 치안방지 하부기구를 강화한다. 유동인구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위법 범죄활동을 단속하며 테러방지능력을 제고한다.

○ 올림픽 기간의 각종 안전보위사업 강화

- 올림픽 안전보위 지휘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림픽 체육관, 거주지 및 관련 장소의 안전보위를 잘 한다. 이전의 올림픽 경험을 참고로 하여 테러활동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법에 따라 각종 소방안전시설을 건설하고 소방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화재발생을 예방한다. 기업의 안전생산교육을 강화하고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중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수도 경찰부대 건설을 강화하여 중국경찰의 양호한 면모를 확립한다.

○ 의료조건을 개선한다

- 올림픽을 위한 서비스 진찰, 응급진찰, 입원조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올림픽의 요구에 부응하여 무장애시설 표준에 따라 의료건축물을 개조하고 건설한다. 의료 구원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응급 구조망을 완벽하게 하며, 올림픽기간의 의료 위생 임무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종사자에 대해 전문훈련을 진행한다.

○ 공공위생을 강화 한다

-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공제를 강화하고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전염병 전파에 경각성을 높이며, 질병검측망을 완벽화하고 예방사업을 전개하며 식품위생을 중심으로 공공위생 감독 및 집행사업을 강화한다. 식품, 생활음료수 등 건강관련 식품의 안전위생을 보장한다.

○ 동물검역사업을 강화한다

- 동물의 질병에 대한 통제, 예방, 검역 및 감독 시스템을 완벽화하고, 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올림픽 경기 동물의 중대한 질병발생을 방지하며, 중대한 식용동물성 상품의 중독사건을 방지한다.

○ 흥분제 사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 흥분제 검측수단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흥분제 검측능력을 제고하여 올림픽 흥분제 검측수요를 충족시킨다. 국제 올림픽 의학위원회 및 세계反흥분

제기구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선진적인 반홍분제 기술, 시설 및 인재를 구비한다.

### (3) 법제환경 건설

《올림픽헌장》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주최 도시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관련법률 제정을 강화하여 법의 집행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전 시민의 법률 의식을 제고하여 올림픽에 양호한 법제환경을 마련한다.

#### ○ 올림픽 표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국가의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를 엄격히 관철하고, 행정 및 사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올림픽 표지 및 관련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한다. 각종 위법행위를 타파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올림픽 표지 보호를 위한 양호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 ○ 정부사업의 법제화를 강화한다

- 시 정부 기능수행부문, 특히 집행부문의 광범위한 법률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법률소질을 제고하며 행정집행능력과 서비스수준을 강화한다. 정부의 업무중 행정업무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올림픽기획에 관한 내용과 중대한 건설항목을 사회에 공포하며, 행정권리 제약메카니즘과 책임예속메카니즘을 확립하고 권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올림픽 부패행위의 발생을 방지한다.

#### ○ 법제교육을 심화한다

- 법제선전 교육을 추진하고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선전하며, 군중의 기율준수 의식 및 권리보호 법률의식을 제고하며, 올림픽 개최에 양호한 법제기초를 마련한다.

#### (4) 시민자질 향상

시민의 사상도덕, 과학문화소질 및 올림픽 참여정도는 올림픽개최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전시민의 종합소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 시민이 적극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호한 환경을 마련 한다
  - 올림픽을 지지 및 참여하고 올림픽을 위하여 공헌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소원으로서, 광대한 인민군중의 올림픽 열정을 고무하고 보호한다. 국제올림픽 <주최 도시 계약>을 따르는 전제아래 올림픽을 주제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보다 많은 군중에게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 올림픽 교육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한다
  - 관련서적을 편집하고 TV, 신문 등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올림픽지식을 보급하며 올림픽 정신을 전파한다. 중소학교에서 <올림픽교육독서>활동을 전개하며 올림픽 교육을 학교의 운동회와 결부시키며, 주거단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올림픽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시민의 체육단련활동과 결부시키며, 전 시민의 올림픽 의식과 적극성을 제고한다.
- 문명도시, 문명단지 및 문명시민 건설을 강화 한다
  - 문명도시, 문명단지, 문명업종 및 문명시민 등 군중성 정신문명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전 사회적으로 <<애국, 예절, 단결, 근면, 자강, 봉사>>의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형성하며 도시의 문명화수준을 제고하여 올림픽을 위한 양호한 도시문명환경을 창조한다.
- 양호한 언어환경을 구축한다
  - “시민의 영어학습” 활동을 진일보 추진하고, 창구업무 특히 대외서비스업종 종사인원에 대한 영어훈련을 강화하며, 보도매체의 외국어 보급노력을 강화하고 신문, TV, 인터넷의 외국어란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표준의 문자, 도형의 인도표

지를 사용한다.

○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조직한다

- 2008년 올림픽 지원자계획을 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및 해외인사들이 지원자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어 숙련자 및 봉사정신 소유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적극 지지하여 방대한 지원자그룹을 형성한다. 2002년부터 북경 지원자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수립하고 강화한다.

## 5) 전략보장조치

- 첨단기술산업 대폭 발전
- 3차산업 발전 가속화
- 산업분포 대폭 조정
- 중점기능구 개발 건설 가속화

(1) 수도경제를 대폭 발전시키고, 발전으로 올림픽을 도운다

튼튼한 경제기초는 올림픽 개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다. “올림픽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으로 올림픽을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 “올림픽경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도경제건설을 발전시키며 수도개혁, 발전과 안정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다 더 나은 경제환경을 조성한다.

○ 첨단기술산업을 대폭 발전

- 전자정보, 생명공학과 신의약, 광·기계전자 일체화, 신소재, 환경보호와 자원종합이용 등 5대 업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전자, 전자 및 통신,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신소재 등 첨단기술산업기지를 건설하고, 일련의

자율지적재산권을 소지한 저명 브랜드 첨단기술제품을 개발 육성하고, 국내외 대기업과 다국적회사의 기술과 자금을 유치하여 과학기술올림픽을 위한 여건을 창조해야 한다. 한편,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전통산업 수준을 승격시켜야 한다. 2008년까지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全市 公업생산총액중 40%를 초과해야 한다.

○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3차산업은 首都경제의 주체이고 서비스는 올림픽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수도의 우수한 자원의 개발을 강화하고 수도자원의 특징을 반영하는 정보 서비스 및 중개 서비스업, 관광 및 회의 전시업, 과학기술교육업, 문화체육업을 가속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형성해야 한다. 금융업, 상업무역유통업, 부동산업, 우편운수업을 대폭 발전시켜, 도시 종합서비스 기능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2008년에는 3차산업 부가가치가 국내생산총액중 65%정도에 달해야 한다.

○ 산업분포를 대폭 조정

- 공업분포의 조정을 중점으로 하여 이전조정을 가일층 확대하여 2008년에는 4환로 이내의 오염기업을 전반적으로 이전하거나 도태시키는 임무를 완수한다. 도시 4환로 이내에는 소수 청결형 첨단기술기업, 생활편의 도시형 공업기업과 대기업 대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매출센타를 잔류시키는 외에 주로 각종 지식 밀집형 서비스업과 금융보험, 상품유통, 우편전신, 문화체육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

○ 중점 기능구 개발 건설을 강화

- 중관춘과학기술단지와 북경상무중심구를 역점적으로 건설하여 올림픽공원과 함께 북경의 3대 중점기능구를 형성한다. 한편, 금융가, 왕푸팅, 쓰단 및 치엔먼-따처란(大柵欄)-리우리창(琉璃廠) 등 중점 상업중심구, 현대화 선적장 및 물류기지 등 중점기능구의 개발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의 종합서비스능력을 제고하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여건을 구축한다.

(2) 과학기술진보를 조속추진하고, 과학기술로 올림픽을 도운다

올림픽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중점 과학연구 분야의 돌파, 기술집적과 도입기술의 소화·흡수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성과의 올림픽 각 단계에서의 응용을 적극 추진한다.

- 전국적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올림픽을 추진
  - 국가과학기술부와 북경시를 필두로 9개 部와 시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올림픽과학기술추진계획”을 핵심으로 하여 일련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국가과학기술계획중에 포함, 추진하고 전국의 과학기술성과를 결집시켜 우선적으로 북경올림픽에 보급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首都 248 중대혁신사업”을 과학기술 올림픽 방향으로 중점 전환하여 과학기술올림픽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중점프로젝트를 장악하여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공사 프로젝트의 결합을 강화
  - 교통, 깨끗한 에너지, 환경보호, 체육장시설, 정보통신, 안전경비, 운동과학기술, 흥분제점사 그리고 올림픽개(폐)막식 등 방면에서 3S기술(원격제어, 지리정보시스템, 전지구위치확정시스템), 지능교통, 청결 석탄연료, 마이크로 위성, 나노소재, 생물칩 등 첨단기술프로젝트의 실시를 추진하여 2008년 올림픽이 과학기술 체육대회가 되도록 한다. 과학기술 올림픽을 계기로 중관촌과학단지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첨단기술산업군의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에 중국첨단기술산업의 발전수준을 과시한다.
- 국제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선진적이고 사용에 적합한 기술성과를 도입 유지한다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간 과학기술프로젝트협력을 전개하고 올림픽개최국의 성공적인 선진기술을 차용, 응용하며, 전지구의 최신과학기술 발전과도 긴밀히 결합하는 한편, 도입한 기술을 대담하게 혁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선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성과를 올림픽에 응용하도록 한다.



### (3) 조직의 지도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

올림픽 준비는 하나의 방대한 시스템공사이다. 각 방면의 힘을 모으고 모든 국민의 지혜와 열정을 집중하여 올림픽 준비를 당장은 물론 금후 한 시기 동안 全市의 중점사업으로 간주한다.

- 올림픽게임을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삼음
  - 全市 각 부서는 가일층 사상을 해방하고, 업무분위기를 전환하여 강한 책임의식, 대국적인 의식을 확립함으로써 해당부문, 해당단위의 사업과 올림픽준비의 각종 임무를 철저히 완수해야 한다.
- 민주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
  - 명석한 두뇌로 과학적인 규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며, 중대 프로젝트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으로 논증하며, 면밀하게 측량·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국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들과 외국의 전문기구들을 초청하여 올림픽 준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허심탄회하게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각 사업을 수행
  - “올림픽추진계획”에 따라 엄밀하게 연도별 계획과 각 단위프로젝트공사의 사업계획을 정하고, 절차별·단계별로 임무를 수행하며, 각 임무를 계획진도 이내로 통제해 나간다. 품질, 진도, 원가 3자간의 관계를 철저히 관리하되 품질을 1위에 두며, 높은 기준으로 각종 건설사업과 준비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 (4) 시장화 운영방향을 견지하고, 자금 모집과 관리를 강화

시장중심의 자금모집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직 및 유도역할을 토대로 시장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을 모색한다. 한편, 조직, 제도, 절차 등 다방면에서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 투융자 체제개혁을 심화하여 투융자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자금모집 융자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 부서독점과 업종독점을 타파하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개발의 시장지향적 운영을 적극 추진하며 비정부 투자의 유입을 장려한다. 기초시설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부가 일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메카니즘을 실시하며 부단히 완벽화해 나간다. 《입찰법》을 착실하게 집행하여 프로젝트법인의 선택 및 계획설계, 시공, 공사감리, 설비자재 구입 등 모든 중요단계를 국내외에 공개하여 입찰한다. 여타 올림픽 주최도시의 성공적인 자금모집 경험을 빌어 시장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을 추진한다.

- 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효율을 제고

- 선후 순서와 경증완급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적으로 배분하며 각 투융자 주체가 적극 협조하여 각종 형식의 융자배분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프로젝트 감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심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략적인 예산규모를 확정한다. 프로젝트 설계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신자재를 이용하여 최대한 건축원가를 낮춘다.

#### (5) 인력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올림픽을 위해 믿을만한 인재확보를 보장한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질이 높고 국제화된 복합형 인재를 선발, 육성, 활용해야 한다. 인재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북경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지적 자원을 발굴, 이용하고, 외국의 지적 자원을 도입, 유치함으로써 올림픽을 위한 믿을만한 인재확보를 보장한다.

- 인재육성을 강화

- 도시관리와 경제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국제화 안목이 있으며, 직접 외국전문가 및 전문기구와 교류할 수 있는 행정관리 인재와 국제체육, 올림픽사무, 국제법사무, 국제상무, 국제금융 및 보험사무, 국제전자정보기술, 국

제환경보호산업기술 등의 방면에 익숙한 전문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각급 정부의 관원과 기업의 지도자들은 시장경제운용, 국제상무, 법률 등 방면의 지식과 신지식 등을 부단히 연마하여 자신의 소질을 개발토록 한다.

- 인력자원 개발정책을 완벽화하고 인재를 적극 유치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함
  - 보수, 인사 등의 측면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합리적이고 흡인력 있는 분배방식을 통하여 각종 인재들의 업무 적극성을 고취한다. 인재유치 종합정책을 발전시키고 완벽화하여 양호한 인재유치환경을 마련하며 해외유학인재들의 귀국근무를 적극 유도하고 해외두뇌와 전문가들을 북경에 초빙한다. 과학기술·행정·기업관리 관계자들의 해외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首都인재시장 육성을 가속화하며 인재중개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6) 건전한 감독규제 메카니즘을 확립하여 올림픽 준비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확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과정을 엄격하게 감독”한다는 원칙아래 각종 규정과 제도를 수립·건전화하고, 체제·제도·메카니즘상의 부패현상 발생을 예방해 나간다.

- 올림픽감독사업의 조직기구를 설립
  -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감독기구는 국가와 북경시 관련부서, 전인대대표, 정협위원, 사회저명인사, 전문가로 구성되고,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감독중점은 올림픽 준비와 개최 과정에 관련되는 자금, 물자, 인원 및 올림픽공사건설프로젝트 등의 중요 사항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프로젝트입찰감독기구를 설립하여 입찰, 투자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고 각종 위법활동이 근절되도록 한다.
- 조직위원회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 수입·지출 분리, 부문별 예산수립, 지급 및 회계의 집중화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량 물품구입은 정부구입방식을 채용하고, 입찰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구입한다. 조직위원회 감독부서는 조직위원회 각 부서의 재무수입, 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 올림픽공사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강화
  - 프로젝트법인 책임제를 실시하고, 각 올림픽공사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을 관리할 개별적인 구좌를 개설하며 자금조달 및 사용의 전용화와 전문인원 관리를 실시하며, 프로젝트자금 사용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감리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공사품질 감독을 강화하며, 공사품질 책임제와 공사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 시행한다.
- 일반 대중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계획의 투명도를 높이고, 모든 올림픽 프로젝트에 있어 주요 내용, 책임기관, 투자, 공사진도 등을 사회에 공포한다. 일반대중이 감독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보제도를 수립하고, 제보전화와 이메일주소를 개설하여 공포한다.
-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분투한다
  - “북경올림픽추진계획”의 집행을 통하여 일심단결하고, 열심히 일하여 당중앙, 국무원의 영도와 전국인민의 참여아래 21세기의 중국 북경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분투하자.

## 제 3 장 스포츠관광객의 특성과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

### 1. 스포츠관광객의 특징

스포츠관광객들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한 행동특성과 소비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풋볼경기를 관람하려는 관광객들의 소비행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관광객들은 다른 유형의 관광객보다 평균 지출비용이 더 많으며 특히, 숙박과 식사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bson, Willming, & Holdnak, 2003).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의 관광특성은 경기참관만 하는 관광상품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경기참관 외의 시간은 대부분 개최지역의 관광코스를 이용한 개별관광을 주로 하며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에 이르는 외래객이 집중된다. 경기를 따라 관광객들의 대규모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메가이벤트를 중심으로 수많은 축제, 박람회, 전시회, 회의 등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올림픽은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이 열광하는 이벤트로서 이들에게 관심 있는 특별한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다. 주로 낮에 관람하는 시간이 집중되므로 야간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역으로의 관광유도가 중요하다. 스포츠관광객들에게는 정적인 관광프로그램보다는 참여형의 동적인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김시중, 2001).

2000년의 시드니올림픽에서도 분석되었지만 메가이벤트를 유치하면 스포츠관광객들이 자동적으로 인근지역을 관광하고 관광상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메가이벤트가 열리는 인근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이벤트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고객유치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지역사회와 여행사가 긴밀히 연계하여 스포츠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을 관광하고 소비행위를 유도하도록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ibson, Willming, & Holdnak, 2003). 이러한 분석들은 충청남도가 북경과의 지리적인 잇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스포츠관광객의 연계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만이 북경올림픽 개최로 인한 파급효과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3-1〉 메가이벤트의 국제스포츠관광 시장별 특성과 요구사항

지역	시장특성	요구사항
유럽/ 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방한외래객이 증가하고 있음</li> <li>-이들의 여가성향은 스포츠관광·참여 공연장·전시회 등 방문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 자연관광 등도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일코스 또는 1일 코스의 전시, 공연안내 (위치, 교통수단, 간략 설명 첨부) 소책자 배포</li> <li>-각국의 국가 (영국 자전거경주 등) 체험이벤트</li> <li>-외국인대상 상설공연 또는 공원 및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공연마련</li> <li>-한국을 가까운 나라 이미지로 홍보</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인당 GNP증가로 중소득 국가에 속하므로 해외여행객의 증가 예상</li> <li>-중국인 해외여행객은 강한 지방문화, 목적지의 역사탐방, 독특한 미각관련 관광대상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의상, 관혼상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전통 민속놀이 소개와 함께 체험관광개발</li> <li>-식도락을 위한 전문식당 개설 및 신상품 개발</li> <li>-한국의 '친절성' 홍보</li> <li>-중국관광객 선호 탐방지역에 중국어 안내판 설치, 중국어 브로셔 제작</li> </ul>
동남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하반기 경제위기로 소비위축</li> <li>-장거리 아웃바운드 여행은 역내 (동아시아) 여행으로 대체될 전망</li> <li>-동북아 여행시 쇼핑, 자연환경, 사적지 문화유적지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쇼핑·자연경관관광 및 신변안전 홍보 강화</li> <li>-동남아용 관광안내지도 작성</li> </ul>

출처: 김시중 (2001), 2008베이징올림픽 특수대비 충청남도 관광수용태세 확립방안, 충청남도, 대전충남행정학회, p.151.

## 2.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

### 1) 개최국가와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는 개최국가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이전 개최국들의 경험으로 살펴본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개최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 2001). 둘째, 단일종목으로선 세계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의 경우 대회를 치르면서 수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3-1>에서 1978년 아르헨티나의 대회수익은 약 24백만달러, 1990년 이탈리아의 수익은 약 74백만달러, 2002년 한국·일본의 수익은 3억83백만달러로 급신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일월드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월드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소비진작효과가 3조 7600억원, 언론을 통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 7조 7000억원, 그리고 기업이미지 제고효과 14조 7600억원을 합친 26조원 이상으로 추산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도 월드컵을 통한 향후 세계시장 점유율이 연평균 0.0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수, 2004).

셋째,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한 관광부문은 약 3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6,825억원의 관광활동 지출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 2001). 2002한·일 월드컵 개최로 인한 국내 관광·유통부문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2.7.9). 2002한·일월드컵 행사기간중의 매출액의 감소와 월드컵 경기장 운영으로 인한 향후 손실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사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31만6천명으로 이 중 일본인 관광객은 13만5천명으로 작년 6월의 22만5천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6월 좌석 이용률이 70-80%로 전년 6월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고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의 6월 매출

〈표 3-2〉 역대 월드컵 수익현황

(단위 \$1,000)

구 분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대회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한국·일본
수익	24,612	30,524	39,420	74,095	99,500	189,684	383,000

출처: 한철언 (2001) '21C 스포츠관광' 과 한국경제신문 (2002.6.19)에서 필자가 재구성

액도 2002년 1-5월중 월평균 매출액보다 적었다고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가 2002년 7월 8일자 최근호에서 지적했다. 따라서 월드컵기간중 얻은 관광·유통수익은 국내 10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들어간 26억달러의 투자자금이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넷째, 월드컵 개최 이후에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상품의 수출증대라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2한·일 월드컵 개최로 인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코리아'와 '한국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행사의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차 그룹은 월드컵기간 중 축구장 펜스광고, 주요길거리 응원장소 옆 기업광고와 제품광고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일본내 인지도도 지난 2월 32%에서 지난 6월에 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대회기간 중 한국, 프랑스, 러시아 등 3개국 월드컵 대표팀을 공식 후원하면서 이들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10%이상 상승된 것으로 파악하고 투자자 대상의 기업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세계정보기술(IT) 10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이익, 성장속도, 주주이익 등 지표전반에 걸쳐 '톱10'에 랭크되면서 종합 1위에 올랐으며 SK텔레콤은 9위에 올랐다(파이낸셜뉴스, 2002.6.30).

무디스는 6월초 삼성전자 회사채 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1'으로, S&P는 'BBB+'로, 영국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회복시키는 등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좋아졌으며 월드컵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덕을 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가이미지 제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관 합동 한국경제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월드컵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파이낸셜뉴스, 2002.6.30). 다섯째,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화합을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문화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행사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숙박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개최도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하였다.

## 2) 북경올림픽 유치가 한국과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

북경올림픽의 개최가 인접지역인 한국과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부문, 관광부문, 그리고 문화부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올림픽에 의한 한중교역 규모는 2000년



310억 달러에서 2008년 1,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3배 이상 확대되고,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08년에는 56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림픽 수요와 관련하여 수혜를 보게 될 산업들은 건설 및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구축과 광고 등의 대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첨단 디지털 설비 및 통신장비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기자재, 디지털 가전, 스포츠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관광산업도 중국 특수가 예상되어 2010년에는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세계관광협회가 예측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계기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림픽 개최 관련 협조와 문화교류 등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인배, 2001).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최로 인해서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며 이를 권역관광상품 개념으로 한국이 잘 활용한다면 한국-중국-일본의 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문화상품의 한류 영향으로 동남아, 일본,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 한국여행사간 연계되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북경으로의 경유 관광패키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육로를 통한 관광의 경우 금강산관광 루트를 북경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부산-대전/충남-서울-속초-금강산 (평양)-북경 관광코스가 가능할 것이다. 해로를 통한 관광은 제주도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천, 평택/아산, 보령, 군산/장항, 목포항에 관광항구의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북경올림픽의 개최는 충청남도의 준비여하에 따라서 관광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문화권은 내포문화권과 백제문화권으로 중국문화나 일본문화와의 연결성 때문에 중국인이나 일본인에게는 문화적으로 흥미있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중국과 해안으로 연결되는 충남의 항만개발과 해안관광거점 도시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충청남도와 충남의 각 시군이 중국과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충남지역의 여행사에서는 국내 전국규모의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여행사와 여행상품개발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충청남도 지역 내 각 자치단체별로 중국 올림픽이 개최되는 북경과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와 문화, 관광교류가 활성화될 여지가 크다.

## 제 4 장 산업분야 대응방안

### 1. 충청남도 산업현황

#### 1) 지역경제 일반현황

최근의 고유가, 원화강세 등의 불리한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과 수출 등의 경제지표는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다. 2004년 현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999년 대비 17조 3206억원 증가한 43조 2,357억원(38조 743억원, 2000=100)으로 나타났다. 총량적인 규모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위, 1인당 GRDP의 경우는 2,191만원(1,930만원, 2000=100)으로 울산광역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충남의 연평균성장률은 7.25%로 전국평균 5.6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의 성장률에 있어서도 6.04%로 전국 평균 4.53%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에 있어서도 2004년 사상 최대인 292억 7천만불을 돌파했고, 2005년에는 최초로 300억불을 넘어선 335억 2천만불을 기록했다. 이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정보기기가 171억불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면서 충남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 IT 경기 둔화 등 불리한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충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수출 품목 다양화 등을 통해 올해는 수출 400억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2004년말 기준으로 충남의 사업체는 1999년 대비 4.13% 증가한 123,445개로 집계됐으며, 취업자 역시 5.38% 증가한 92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기간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인구는 각각 3.18%, 0.55% 증가한데 그쳤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지표로서의 인구는 1999년에서 2004년까지 충남이 7%가 넘는 경제성장을 보이는 동안 0.48% 증가한 197만 3천명으로 나타나 전국의 평균증가율

0.63%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천안시(4.65%), 아산시(2.44%), 연기군(1.03%)만이 인구가 증가됐으며, 나머지 시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천군(3.32%), 청양군(3.20%), 부여군(2.55%)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충청남도의 경제 일반현황

구 분	전 국		충청남도	
	1999	2004	1999	2004
지역내총생산(십억원)	527,603	786,362	25,915	43,236
인구(천명)	47,543	49,053	1,926	1,973
1인당GRDP(만원)	1,110	1,603	1,345	2,192
사업체수(개)	2,927,330	3,189,890	118,552	123,445
수출액(백만불)	143,686	253,845	11,185	29,272
15세이상인구(천명)	35,757	37,717	1,450	1,458
경제활동인구(천명)	21,666	23,370	911	940
취업자(천명)	20,291	22,557	874	921
재정자립도(%)	63.8	69.6	48.3	55.4

출처: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 2) 지역 산업구조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4년 충남은 농림어업 9.4%, 광공업 42.5%, 서비스업이 48.1%를 점유하고 있다. 동기간 전국의 산업구조가 농림어업 3.8%, 광공업 31.0%, 서비스업 65.2%을 나타내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 북부권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달이 가속화되고 있고, 내륙과 해안으로는 농림어업이 발달해 있어, 전국보다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충남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1995년에 비해 4.7%포인트 감소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동기간

중 14.7%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산업생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져 1995년 5조 1240억에서 2004년 14조 530억원으로 연평균 10.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충남 서북부권으로의 산업집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은 1995년 14.1%에서 2004년 현재 9.4%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수준(3.77%)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농업테크노파크의 개원과 대전·충북지역과 연계한 초광역 바이오산업 육성 등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농림어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동물 사료백신 첨가제 및 육·유가공 기술개발 및 축산연구, 교육, 종축보급 등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동물자원센터, 축산 바이오테크노파크 등이 향후 준공되면 동물관련 연구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표 4-2〉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십억원 %)

년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995	18,763 (100.0)	2,654 (14.1)	128 (0.7)	5,124 (27.3)	10,856 (57.9)
2000	25,783 (100.0)	3,158 (12.2)	140 (0.5)	9,942 (38.6)	12,544 (48.7)
2001	26,617 (100.0)	3,147 (11.8)	125 (0.5)	10,135 (38.1)	13,210 (49.6)
2002	28,860 (100.0)	3,025 (10.5)	127 (0.4)	11,489 (39.8)	14,219 (49.3)
2003	30,871 (100.0)	2,968 (9.6)	188 (0.6)	12,366 (40.1)	15,349 (49.7)
2004	33,422 (100.0)	3,148 (9.4)	151 (0.5)	14,053 (42.0)	16,070 (48.1)

출처 : 통계청(각년도), 「지역내 총생산」

### 3) 산업별 집적 현황

2004년 현재 충남 지역의 제조업체수는 총 3,820개소로 전국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월평균종사자수는 157,850명으로 전국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65조 4,260억원, 23조 6,467억원으로 전국대비 각각 8.2%, 7.8%로 사업체나 종사자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대비 고부가가치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사업체는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동기간 전국 제조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 1.8%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도 동기간 전국은 0.6% 감소한 반면, 충남은 연평균 3.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충남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95	00	04	95	00	04	95	00	04	95	00	04
제조업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음·식료품 제조업	16.8	17.4	17.8	12.3	12.1	10.9	14.0	9.2	8.2	11.4	10.4	8.9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0.3	8.6	5.7	8.3	6.0	3.5	5.2	2.8	1.6	5.9	2.8	1.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2	0.1	0.2	0.9	2.2	0.6	5.3	12.9	8.8	2.5	2.8	3.0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5	6.4	7.2	9.4	8.6	7.6	16.6	16.0	14.2	19.9	15.8	15.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9	9.0	9.5	5.0	7.2	8.4	3.6	4.0	4.4	3.6	4.7	5.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9	9.5	8.6	10.4	5.0	5.5	6.8	2.4	4.0	8.6	3.1	5.8
제 1차 금속산업	2.3	1.9	2.3	4.0	2.9	3.1	6.1	5.2	5.0	5.9	3.5	3.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8.5	8.3	10.0	6.0	5.2	5.0	3.8	2.7	2.7	3.8	3.2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	10.0	10.9	9.5	9.3	9.3	8.7	6.5	6.0	7.7	6.9	6.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9	4.1	4.1	5.6	6.3	6.2	5.5	3.8	4.4	4.4	3.5	4.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8	4.2	3.5	9.6	13.6	16.4	8.0	13.4	20.7	10.3	19.6	24.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6.3	7.5	4.6	10.3	14.8	3.4	13.4	14.1	3.7	15.6	12.3
기타	16.4	14.3	12.7	14.4	11.5	8.9	13.0	7.8	5.9	12.3	7.9	6.4

출처 : 통계청(각년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업종별 변화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의 제조업을 견인해 가고 있는 산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액 증가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1995년 10.3%에서 2004년 24.4%로 급속히 증가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도 동기간 3.7%에서 12.3%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사업체수에서 충남산업의 17%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음·식료품 제조업은 종사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에 있어서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4대 전략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디스플레이산업과 첨단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큰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바이오산업 관련해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다소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음·식료품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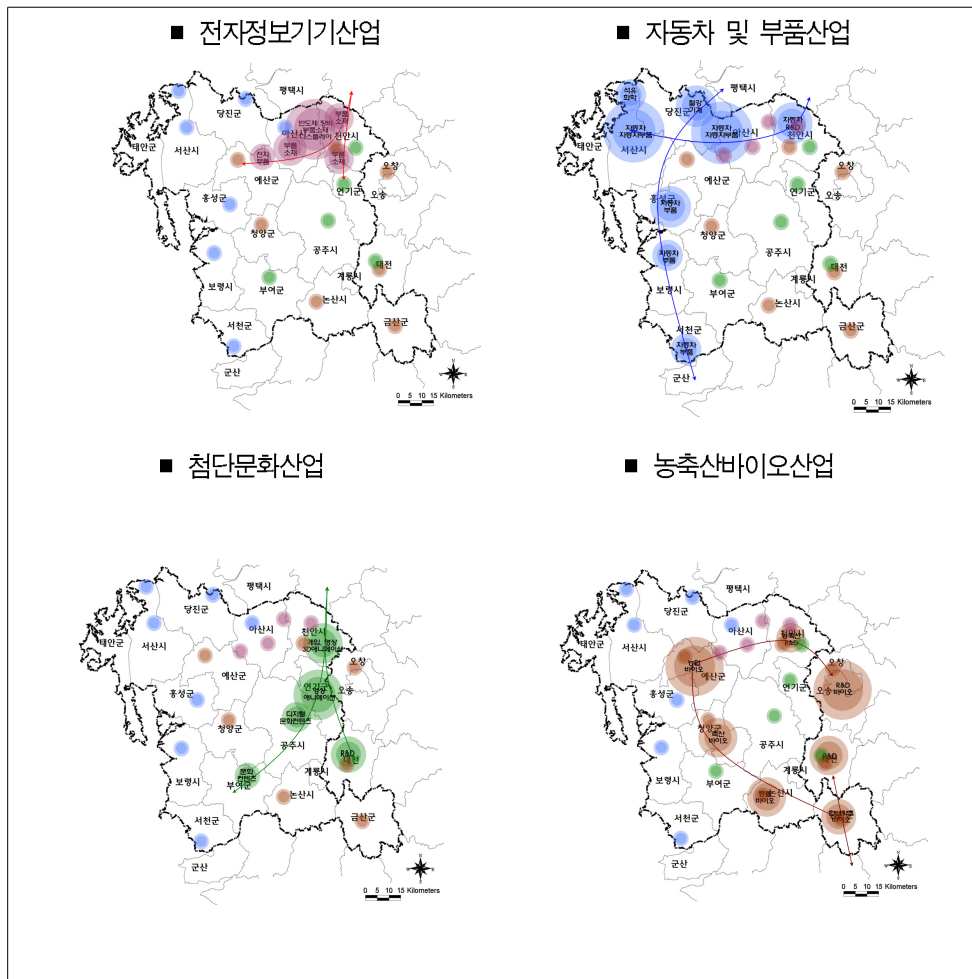
충남의 전략산업별 산업집적은 대부분의 산업이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이 되어 있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정보기기산업은 아산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변지역에 중소 부품업체들이 집적이 되어 있고, 관련 산업이 많은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아산에 현대자동차, 서산에 동희오토(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관련 부품업체 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홍성에 덴소 풍성과 3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첨단문화산업은 연기군의 홍익대학교와 공주시의 영상정보대 그리고 천안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천안·아산 기업들과 연계되어 디지털문화산업이 차츰 발달하고 있는 추세다.

농축산바이오산업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농업과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대전 및 충북의 R&D기능을 연계하는 광역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예산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테크노파크, 청양의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논산의 동물자원센터가 산업집적을 위한 주요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1〉 충남 전략산업의 집적지 및 확장경로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서비스업은 1995년 51.8%에서 2000년 43.3%, 2004년 42.1%로 낮아지고 있다. 동기간 제조업이 각각 24.5%, 34.3%, 36.9%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현재 충남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역내총생산 38조 743억원(2000=100)가운데 16조 704억원으로 3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체수로는 111,720업체, 고용규모는 381,860명으로 전국대비 각각 3.91%, 3.36%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체업체의 30.6%(종사자수 기준 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5.4%(종사자수 기준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율에 비해 생산액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 불과하며, 이 역시 정체되거나 낮은 성장세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표 4-4〉 충남지역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서비스산업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1	0.1	0.1	0.8	0.8	1.1	5.7	10.2	12.9
건설업	3.3	2.9	3.1	8.8	6.9	6.0	26.6	19.6	20.6
도소매업	38.0	33.9	30.6	22.4	22.5	20.6	7.4	6.2	5.9
숙박및음식점업	22.0	24.3	25.4	15.0	17.6	17.6	3.8	3.9	3.8
운수업	6.9	8.2	8.6	5.9	5.9	6.2	5.4	6.3	5.0
통신업	0.3	0.3	0.4	1.1	1.3	1.3	2.4	2.9	4.1
금융보험업	1.5	1.4	1.3	7.3	5.9	4.6	4.3	5.9	6.9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4.5	4.2	5.3	4.0	4.9	6.6	12.7	13.2	11.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1.1	0.8	0.8	8.7	7.1	6.3	13.0	14.4	12.4
교육서비스업	3.8	3.8	4.2	10.8	11.3	12.8	11.5	10.2	10.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8	2.3	2.5	3.6	5.0	5.7	3.6	3.4	2.7
기타서비스업	16.7	17.8	17.8	11.7	10.8	11.1	3.6	3.9	3.8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 4) 해외투자유치 現況

##### (1) 연도별 투자현황

최근 5년간 충남도의 투자유치건수 및 금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도 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 총42건으로 안면도 개발을 포함하여 12억불(신고기준)의 실적을 거두었고, 특히 Greenfield 중심 투자유치전략과 IT, 자동차부품 제조업종 등 맞춤형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규모 첨단제조업인 S-LCD 유치와, 탄소풍성, 네스디스플레이사의 추가투자를 성사시키는 등 당초 목표(3억불)대비 400%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도는 투자건수가 급속히 신장되었고, 2006년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S-LCD의 추가투자 등 FDI 금액이 폭증세를 보였다.

〈표 4-5〉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천\$)

구분	합계	'06	'05	'04	'03	'02이전
건수	484	37	70	42	26	309
유치실적	6,673,420	1,331,304	329,044	1,200,725	701,646	3,110,701

출처 : Cyber KISC(2006. 10.31 현재)

##### (2) 유형별 현황

유형별로는 증자가 신규보다 건수나 금액에 있어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6〉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 천\$)

유형	합계		신규		증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37	1,331,304	11	70,268	26	1,261,036

출처 : Cyber KISC(2006. 10.31 현재)

### (3) 국가별 현황

투자국가별로는 일본이 건수와 금액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어 금액으로는 네덜란드가 건수로는 중국의 투자가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기타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홍콩, 호주 등에서 크고 작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동향을 보면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사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7〉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 천\$)

국가별	합 계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기타
건 수	37	4	13	3	2	1	1	6	2	5
금 액	1,331,304	2,239	1,053,451	8,215	231,065	2,350	2,000	405	3,650	27,929

출처 : Cyber KISC(2006. 10.31 현재)

### (4) 업종별 현황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금액상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고, 석유화학과 기계, 자동차 등에서 주로 FDI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8〉 업종별 투자실적

구분	합계	자동차	전기 · 전자	특수가스	기계	음식숙박	석유화학	기타
계	37	3	5	1	5	2	4	17
	1,331,304	31,452	968,944	5,482	11,194	113	303,739	10,380

출처 : Cyber KISC(2006. 10.31 현재)

## 2. 충청남도 산업분야 대응방안

### 1) 수출진흥전략

중국의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향후 유망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장·단기적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민중기, 2001).

#### (1)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

- WTO 가입: 관세인하, 수입규제 품목 해제
  -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완화로 외국인투자유치 증가
  - 경제관련 제도 정비로 중국내 기업경영 환경 대폭 개선
  - 경제성장률 1-3% 포인트 상승과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효과 있음
-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 중국 소비 촉진 계기
  - 경기장 건립, SOC 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투자 확대
  - 올림픽 전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발전
  - 경제성장률 0.1-0.4% 포인트 상승과 건설, 관광, 교통, 광고, 소매, 부동산 등 전반적 경기 진작
- 올림픽 유치 확정 후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향
  - 폭스바겐: 향후 5년 이내 14억 5,000만달러
  - 에릭스: 2005년까지 27억 달러
  - 모토로라: 2005년까지 20억 달러
  - 맥도날드 & KFC: 대대적 프랜차이즈 확대 계획발표

## (2) 단계적 수출진흥 전략

### ① 단기적 전략

#### a. 대륙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출시장을 공략

- 농수산 가공품: 서북부
- 환경 및 건축자재: 내륙
- 전기·전자·의류 등 일상용품: 대도시

#### b.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품목 공략

- WTO 가입 후 수입규제 해제 및 관세인하 예상 품목
  - 인삼제품 (홍삼차, 태극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류), 자동차부품, 섬유 (고급원단류, 여성의류)
- 2008년 올림픽 유치, 소비촉진에 따른 일상용품 및 스포츠류
  - 방송·통신장비, 첨단 디지털 설비
  - 주방용품, 손톱깎기, 실내장식류 (전등, 욕실세면대, 욕조), 스포츠용품 및 의류, 문구류
- 서부 재개발 추진, 건축 및 설비자재
  - 창호, 욕조, 도로포장용 설비 (중장비 부품), 건축마감재 (방수재 및 포장재 등)
- 중산층 확대에 따른 제품의 고급화
  - HD-TV 등 가전제품, 고급의류

### ② 중·장기적 전략

- 중·장기적으로는 소품목보다는 대형품목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역점
  - 건축 및 농업기계, 첨단기술장비, 자동차 및 선박관련제품

- 지역별 유망품목 선정, 전문 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 참가 확대
  - 참가가 가능한 박람회 선별 참가 유도

- 가격 경쟁력 열세 극복 노력
  - 첨단기술 제품 진출, 틈새시장 공략

### (3) 상해상품전시관 활용 홍보 및 판로지원

- 10대 집중 공략 상품 선정
  - 주방용품, 손톱깎기, 실내장식품 (전등, 욕실세면대), 스포츠용품, 의류, 문구류, 창호, 건축자재 및 설비, 방수자재, 기계부품류
- 시장 동향 파악 제공
- 중국내 박람회 대행 참가: 연5회 (지속확대)
- 무역상담, 바이어 알선, 수출계약 성사 등 무역실무 지원

## 2) 親中 우호협력 전략

### (1) 하북성

- 1995년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강화
- 우호친선 협력기반 강화 협의
- 실리적 경제·통상·문화·행정 교류의 활성화 협의
  - 양 지역간 통상 미 문화행사에 상호 적극 참가 등

## (2) 산둥성

- 1996년 경제교류 협력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양 道 · 省간 상호 인적교류로 친선 관계 유지
- 실리적 경제, 통상 협력 기반 강화

## (3) 상해

- 상해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 대중국 진출 협력방안 강구
- 駐 상해 경제인과 중소기업 대중국 진출 협력방안 협의
- 상해사무소를 거점으로 상해시 정보와 교류 협력방안 추진

## (4) 북경

- 충청남도과 북경 TV간 도내 첨단기업, 도정을 중국내 홍보
  - 북경TV의 충청남도 특집 프로그램 제작 협의
  - 북경TV를 통한 백제역사엑스포 등 충남도 사업 특별 홍보 추진
- 북경시와 교류 협력 추진
  - 도내 건설업, 토목관련 기업 중국 진출 방안 모색
-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추진

## (5) 연변조선자치주와의 교류 협력

- ‘우호교류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 추진
  - 경제, 무역, 과학기술, 농업, 문화, 체육 등 교류 증진
- 연변자치주내 충남 무역관 (가칭) 설치 운영 검토추진
- 충남도 농업진출 위한 연변 농업투자지역 확정
  - 농업투자협력단 7명 (공무원, 교수, 농업인) 현지방문 등 추진

- 연변자치주 농업기술인력 도내 연수 등 농업교류 협의
- 연변자치주 경제교류 협력 추진

### 3) 해외투자유치 전략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중국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충청남도는 관광, 물류, 고 기술산업 등 외국기업투자유치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해외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기초적인 역할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명확한 투자유치 방향 및 전략의 설정으로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차원의 총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충청남도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입지매력의 확충이다. 충청남도는 지역 외국인투자유치의 주도자로서 타 지자체 혹은 경쟁대상 국가의 지역들과 비교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생산요소 및 시장의 접근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지역의 매력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포함한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굳건한 협력체계 형성,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이 우리 도에 구성되면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해당지역에 대한 이미지 창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이 매우 우수한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투자여건이 우수하지도 않으면서 우수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미지를 창출시켜서는 오히려 투자실행단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지 창출활동을 전개하는 지자체의 리더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위직급이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주요 경제신문에 광고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이미지를 창출할 수도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지역산업발전계획과 TRM에 따른 유치대상분야의 다국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투자유치 순방이 효과를 거두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실행을 위한 설득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활동은 투자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투자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투자실행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자를 일대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치 고가의 산업설비를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투자유치전담자가 전문적인 상담기법과 마케팅지식을 갖추고 잠재투자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협의할 때에는 투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협상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IDA의 투자유치조직처럼 탄력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투자 사후관리활동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투자실행과정 및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투자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주재원 가족의 주거, 자녀교육, 문화생활 등 각종 생활편의를 지자체 투자유치전담 직원들이 성심껏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한국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이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의 경영자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투자 사후관리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실행과 사후처리는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조직을 전담조직화 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항만을 확충하고 중국기업이 국내의 부품과 기술로 생산한 것을 중국에서 다시 조립하는 부가가치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각 산업집적지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제 5 장 관광분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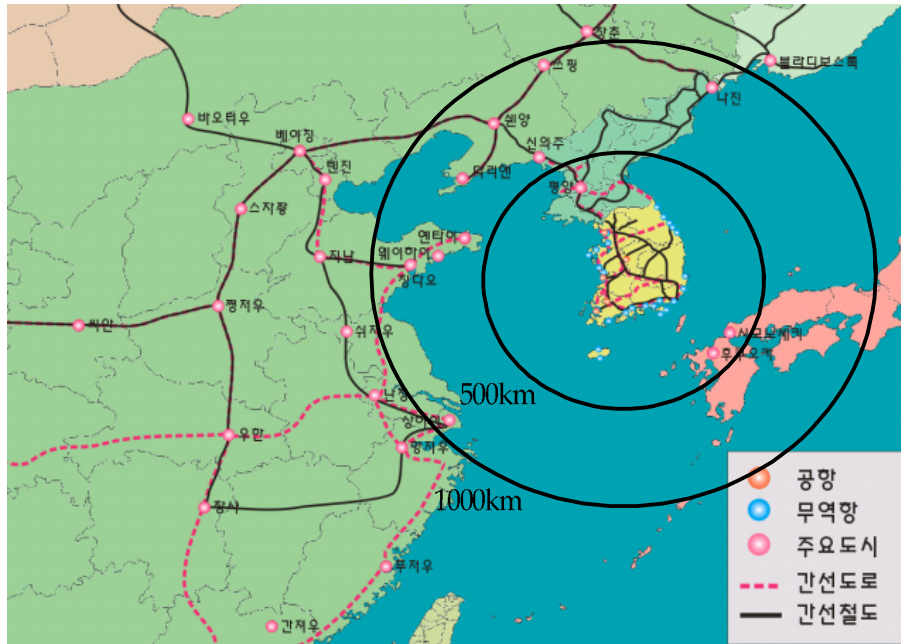
### 1.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현황

#### 1)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와 관광전망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는 일부 연구자들이 중국의 상하이, 장수, 산둥, 허베이, 랴오닝, 베이징, 톈진, 일본의 남서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계를 환황해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인배, 2001).

현재 환황해권 내에는 10개의 해상노선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11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고, 환황해권에서 관광지리적 범위는 항공교통의 발달로 1일여행권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역, 투자, 비즈니스, 물류, 관광 등을 포함하는 통합지역이 될 수 있다 (김원배외, 2000). 세계관광기구 (1998)는 관광산업이 2010년에는 세계적으로 3억2,800만개의 고용과 함께 10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동북아시아의 경우 1조 9,530억 달러와 9,850만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5-1〉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



출처: 이인배 (2001),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한 충청남도 관광개발 대응방안 충청남도, 대전충남행정학회, p.28.

〈표 5-1〉 세계 및 동북아시아의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

연도	지역	총수입 (십억\$)	고용		GDP		자본투자		정부지출	
			일자리 (백만개)	비율 (%)	백만\$	비율 (%)	십억\$	비율 (%)	십억\$	비율 (%)
1998	세계	4,373 (100.0)	231 (100.0)	9.4	3,564 (100.0)	11.6	779 (100.0)	11.8	253 (100.0)	6.8
	동북아	723 (16.5)	78 (33.8)	9.7	608 (17.1)	10.3	175 (22.5)	10.2	33.4 (13.2)	7.3
2010	세계	9,963 (100.0)	328 (100.0)	10.9	8,008 (100.0)	12.5	1,769 (100.0)	12.0	542 (100.0)	7.4
	동북아	1,953 (19.6)	99 (30.2)	10.8	1,589 (19.8)	10.9	436 (24.6)	10.2	85.9 (15.8)	7.6

출처: WTO (2000), <http://www.world-tourism.org>.

WEFA와 노무라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동북아시아내의 지역간 여행은 1997년에 1,400만명 정도에서 2020년에는 4,200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역간 여행 및 관광에서 주요한 자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인배, 2001).

〈표 5-2〉 동북아시아 역내 관광객 성장 전망 (1997-2020)

목적지 출발지		동북아	중국	홍콩	타이완	한국	일본
동북아시아	1997	13,890	2,360	5,810	1,180	2,090	2,450
	2020	42,190	9,420	18,030	3,380	4,640	6,720
중국	1997	2,770	-	2,300	-	210	260
	2020	14,580	-	12,050	-	1,270	1,260
홍콩	1997	630	-	-	260	100	270
	2020	4,320	-	-	1,960	370	1,990
일본	1997	5,450	1,580	1,370	820	1,680	-
	2020	12,020	6,170	1,850	1,100	2,900	-
한국	1997	2,250	780	360	100	-	1,010
	2020	6,510	3,250	960	320	-	1,980
타이완	1997	2,790	-	1,780	-	100	910
	2020	4,760	-	3,170	-	100	1,490

출처: WTO(2000), <http://www.world-tourism.org>.

## 2) 환황해권내 관광산업의 현황

1980년에는 동북아시아의 관광객이 전세계 관광객의 4%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8%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는 관광산업에 가장 큰 잠재력이 존재하며, 중국은 1998년 기준 관광객수 6위, 총수입에서 7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산, 아시아문화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증대 등의 호재로 인해 관광대국으로의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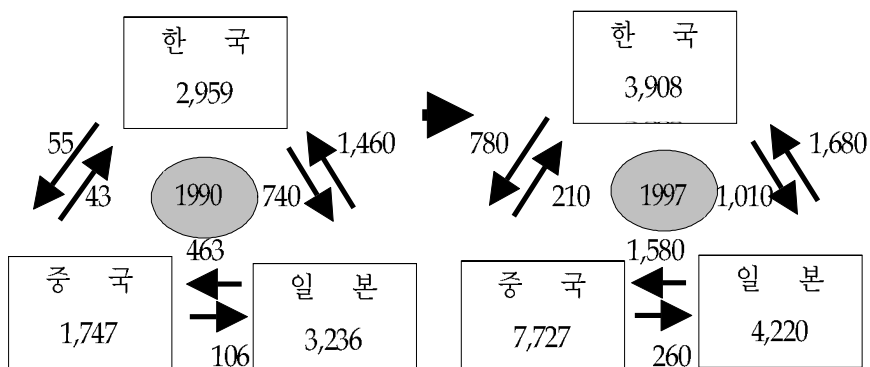
〈표 5-3〉 세계 지역별 관광객 수

지역	해외관광객수 (천명)			연평균증가율 (%)	세계대비비율 (%)	
	1980	1993	1996	80-96	1980	1996
세계	285,328	518,074	594,827	4.70	100.0	100.0
아프리카	7,329	18,605	21,553	6.97	2.57	3.62
미국	61,368	103,758	116,673	4.10	21.51	19.61
동아시아/태평양	21,480	71,094	89,186	9.31	7.53	14.99
동북아시아	10,785	40,677	49,435	9.98	3.78	8.31
유럽	185,442	309,758	348,999	4.03	64.99	58.67
중동	7,467	11,348	14,084	4.05	2.62	2.37
남아시아	2,242	3,511	4,332	4.20	0.79	0.73

출처: WTO (2000), <http://www.world-tourism.org>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 3국간 역내 관광흐름을 1990년과 1997년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중국과 중국-일본간에 양방향 이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한국-중국-일본 3국간 역내 관광흐름 (1990-1997)



출처: 이인배 (2001),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한 충청남도 관광개발 대응방안, 충청남도, 대전충남행정학회, p.31.

### 3)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문제점

환황해권의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각 지방도시로의 접근성과 지역간 협력시설부족, 기반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 부족, 언어문제,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입국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다 (김원배외, 2000). 환황해권내 관광활동은 대부분 각국의 수도에서 이루어 지는데, 각국의 수도인 베이징, 서울, 도쿄에 외국관광객의 대다수가 방문하고 있다. 이는 관광기반시설이나 국제적 교통·통신시설이 각국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도시에도 관심을 끌만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여행객의 대부분이 직접 지방도시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원배외, 2000).

〈그림 5-3〉 환황해권내 항공교통망 현황



출처: 이인배 (2001),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한 충청남도 관광개발 대응방안, 충청남도, 대전충남행정학회, p.32.

〈그림 5-4〉 환황해권내 해상교통망 현황



출처: 이인배 (2001),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한 충청남도 관광개발 대응방안, 충청남도, 대전충남행정학회, p.32.

#### 4) 환황해권 관광산업의 과제

이의 해결을 위한 도시간 협력사항에서 관광분야는 한국-중국-일본의 교류의 장 및 관광특구 지정, 공동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및 내륙루트 개발과 공동관광안내지도 작성,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배외, 2000).

〈표 5-4〉 환황해권 도시간 협력을 위한 협의사항

구분	환황해권 협력사항
도시간 네트워크 및 자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협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li> <li>- 자유항 네트워크 (free port network) 구축</li> </ul>
물류 및 사회간접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페리 도입</li> <li>- 정보망 확충 및 항만, 장비, 시스템 표준화</li> <li>- 동북아 외부지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한 공동협력 서비스</li> <li>- 컨테이너 풀 시스템 및 운송시장의 자유화</li> </ul>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등과 같은 교류의 장 건설 및 관광특구 지정</li> <li>- 공동패키지관광 및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크루즈관광상품 및 내륙루트 개발</li> <li>- 해외시장에 대한 공동 홍보</li> <li>- 한국어, 중국어, 일어판 환황해권 관광지도 작성</li> <li>- 항만도시의 3개 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용</li> <li>- 정부간의 관광합의, 상호비자, 특별한 경우 정기회의 등 추진</li> <li>- 도시간 관광협력위원회 (Inter-city Tourism Cooperation Council)구축</li> <li>- 국가별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li> <li>- 자유항공수송 증진 및 항공교통제한 완화</li> <li>- 크루즈 관광코스를 위한 시설개발: 호텔 체인 등</li> </ul>
--	--

출처: 김원배 외 (2000),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국토연구원.

## 2. 충청남도 관광산업현황

### 1) 충청남도 방문 외래관광객 현황

2000년 기준 충청남도 방문 관광객수는 약 5,78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관광객중 내국인 관광객은 99.04%인 5,625만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0.96%인 약 55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아산시,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의 순으로 방문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중 지역별 점유율은 아산시 43.97%, 공주시 16.33%, 부여군 11.7%에 달해 이들 3개 지역에 충청남도 방문 외래관광객의 72%를 차지하는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5-5〉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2006.1-2006.9)

충청남도 지역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비율
천안시	10,529	2.64
공주시	20,064	5.05
보령시	1,767	0.44
아산시	308,740	77.7
서산시	-	-
논산시	402	0.10
금산군	97	0.02
연기군	117	0.03
부여군	23,878	6.01

서천군	51	0.01
청양군	116	0.03
홍성군	353	0.09
예산군	28,270	7.11
태안군	2,661	0.67
당진군	508	0.13
계	397,553	100.00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6). [www.tour.go.kr/stat](http://www.tour.go.kr/stat)

## 2) 충청남도 기반시설과 관광개발계획

### (1) 중국진출을 위한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

충청남도에서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 등 교통기반시설과 관광기반시설이 필요하므로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5-6>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은 무역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항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6> 중국진출을 위한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억원)
항 만	계		38개 항만 (무역항 4, 국가어항 5, 지방어항 29)	18,995
	무역항	소 계	4개 항만, 63선석	16,409
		평택당진항	40선석	6,509
		보령신항	9선석	3,427
		대산항	6선석	4,373
		장항항	8선석	2,100
	국가어항		5개항만(비인항, 남당항, 삼길포항, 홍원항, 안흥항)	1,580
	지방어항		29개항만	1,006



항 공	소 계	7개 사업	1,636
	민항기취항	1개소(서산공항)	136
	경비행장	6개소	1,500

출처 : 충청남도 (2006),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

## (2) 충청남도 문화관광 개발계획 (충청남도 도종합계획 수정안, 2006)

충청남도의 문화관광 개발계획은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 배후 테마관광지 개발과 관광거점 연계형 관광명소의 발굴, 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방문객의 성향을 고려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의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다.

〈표 5-7〉 충청남도 문화관광개발계획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총 계			17개 사업	38,243	-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 배후 테마관광지 개발	계		5개 사업	23,464	-
	대도시 배후 관광지와 국제관광도시 조성	소 계	3개 사업	23,079	-
		백제호종합개발	부여 반산, 2,975천㎡	1,450	2008~2020
		안면도국제관광지 (지포지구 포함)	꽃지/지포지구, 6,115천㎡	11,018	2008~2020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	태안(14,612천㎡)	10,611	2001 ~2020
	온천테마 보양·체험관 광도시의 개발	소 계	2개 사업	385	-
		아산만권 휴양단지	아산, 330천㎡	350	2011~2015
		온천·웅기전시체험관 건립	아산 도고, 17,365㎡	35	2006~2007
관광거점 연계형 관광명소의	계		12개 사업	14,779	-
	명소관광지 및 역사테마	소 계	2개 사업	12,459	-

발굴, 육성	관광지 개발	기존 지정관광지 정비 및 신규관광지 조성	25개소(정비/보완) 4개소(신규)	12,399	2006~2020
		의종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예산 대흥, 66,116㎡	60	2006~2010
	생태관광자원 과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소 계	3개 사업	338	
		탐정호 생태관광지구 조성	논산 탐정, 52천㎡	250	2007~2020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예산 예당, 109천㎡	28	2006~2007
		어촌관광단지 조성	보령 무창포	60	2006~2008
	레포츠형 위락과 웰빙체험과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제공	소 계	3개 사업	1,298	
		마리너시설 조성	보령, 서천, 홍성, 당진	480	2006~2020
		태안그린웰빙파크 조성	태안 원북, 694천㎡	62	2007~2008
		레포츠단지 조성	공주, 148천㎡	756	2011~2020
	메가이벤트 정기개최와 시군 협력 관광자원 개발	소 계	4개 사업	684	
		문화관광축제 육성	5개소(금산, 보령, 서천, 강 경, 아산)	74	2006~2010
		세계 군문화 엑스포(2008년)	1식(계룡)	341	2006~2020
		(가칭) 대백제전	1식(부여)	200	2008~2012
		서해안 Sea Food페어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당진, 서천	69	2006~2010

출처 : 충청남도 (2006),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

충청남도는 2006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수정하면서 충청남도 지역을 5대권역으로 나누고 중국을 포함한 환황해권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이다 (충청남도, 2006.12.22). 이 수정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충청남도를 5대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 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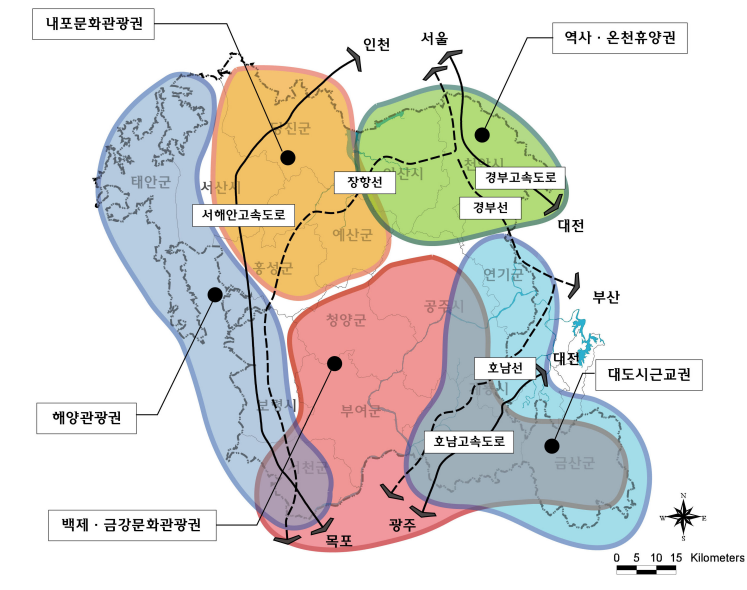
〈표 5-8〉 충청남도 5대 권역과 대상지역

구 분	범 위	거 점	부거점	개발방향
백제·금강문화 관광권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공주 부여	논산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내포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예산·홍성 (신도청)	서산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
해양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	보령 태안	서천	안면·보령의 해양관광거점기능을 중심 으 로 하는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 양관광
역사·온천 휴양권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충절의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휴양관광
대도시 근교권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	연기 (행복도시)	계룡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행정중심복 합도시, 산악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양 도 시·문화관광

주: 관광권역은 입지 및 자원특성에 따라 중복 설정

출처: 충청남도 (2006.12.),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

〈그림 5-5〉 충청남도 5대 권역과 대상지역



출처: 충청남도 (2006.12.),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권역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성별 관광 권역 설정과 대표적 특화 관광자원의 발굴·육성을 추진한다. 그러므로 자원의 특성과 동질성, 관광객 이용성향 기준으로 내포문화권, 백제·금강문화권의 2대 문화권역과 역사·온천휴양권, 해양관광권, 대도시근교권 등 5대 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연계형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한다.

### 3. 충청남도 관광산업 대응방안

#### 1) 관광상품 개발 분야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여 충청남도는 관광상품 개발 분야에서 다섯가지 관광상품개발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개발이며, 둘째, 대

전·충북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이다. 셋째, 충청남도의 시군 지자체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이며 넷째, 여행사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이다. 마지막 다섯째, 충청남도의 특색 있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이다.

#### (1) 한·중·일 연계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에서 한국-중국-일본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3국을 아우르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3국의 협력 네트워크는 충청남도에서 새로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SEAN + 3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협력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기구이다. 이러한 협력기구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관광 협력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13개국의 관광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리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3국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커 보인다. 둘째, 충청남도의 관광개발계획과 부합하는 핵심관광상품의 소재 발굴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중국-일본 관광시장에서 가장 소구될 수 있는 관광테마는 역사문화이다. 충청남도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는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지역특화박물관으로 압축된다. 현재 일부 개관한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외국인의 성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내포문화권에 분포되어 있는 중국과 세계 각국에서의 도입문화로 형성된 개방성과 다양성이 있는 내포문화자원과 일본으로 전래된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출해야 한다.

#### (2) 충북·대전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권역관광상품의 개념은 한국-중국-일본의 국가간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백제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며 역사관광지역으로 그 성격이 차별화된다. 대전은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의 도시로서 그에 적합한 관광매력물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에서는 첨단과학전시관을 총사업비 95억원을 들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정부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1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성과물 제작과 설치에 관해서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별 역할분담 또한 중요하다. 대전의 첨단과학테마의 관광, 유성의 현대화된 숙박시설, 충청남도의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각종 매력물들, 농촌관광, 템플스테이와 농촌체험숙박시설 등 지역별 차별화된 테마로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다면 충청남도의 관광매력도는 배가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적별 성향이나 스포츠관광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주지역 대상으로는 역사문화관광상품이 유효한 관광테마가 될 것이며 일본지역 대상으로는 온천/목욕관광상품이 좋은 관광테마가 될 것이다. 동남아와 중국지역 대상으로는 쇼핑관광상품 등이 좋은 관광테마가 될 것이다.

### (3) 충청남도의 시군 지자체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권역관광상품의 개념은 다시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관광상품 연계에 적용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각 지자체별 관광매력도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강한 편이다. 특히 축제 분야는 문화관광부에서 집계한 전국 726개 축제 중 67개 축제가 충남에서 열리며 117개의 축제를 개최하는 강원도를 제외하면 그 규모면에서는 전국 2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 각 지자체별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최근 드라마 마케팅 등을 활용하거나 독자적인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전역을 연계한 관광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모든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과 인접 몇몇 지역이 연계하여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 수정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개의 각 권역별로 유사한 테마를 발굴하여 권역에 있는 시군이 관광사업을 공조해 나간다면 그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다.

#### (4) 여행사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전체 4,560,050명이며 이중 충청남도의 각 시군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397,553명으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지자체중 아산시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308,740명으로 충청남도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의 약 77.7%로 가장 큰 비중이다. 현재 외국인 방문율이 상당히 열악한 충청남도의 상황이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을 충청남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여행사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행사 연계전략은 충청남도 내에서 외국인관광객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산시를 중심으로 실행하되 예산군, 부여군, 공주시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충청남도과 각 15개 시군에서는 지역내 여행사를 통하여 전국규모의 여행사와 충남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과 중국 등의 자매도시지역을 통하여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5) 충청남도의 특색 있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

충청남도는 전국에서도 축제가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집계한 전국 726개 축제 중 67개 축제가 충남에서 열리며 이중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축제도 상당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축제를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최근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었던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06년에 예산에서 개최된 농업박람회, 2002년에 개최된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010년에 개최예정인 중부세계역사엑스포도 이러한 충청남도과 각 지자체의 축제의 국제화 의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 축제와 민속놀이, 지역문화행사를 지역단위의 자체 축제에서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금산인삼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백제문화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테마로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사례이며 북경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2) 관광정책 분야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여 충청남도는 관광정책 분야에서 네 가지 관광정책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중국-일본 관광협력네트워크개발 정책이며, 둘째, 충청남도-대전-충청북도 관광협력네트워크개발 정책이며, 셋째, 2008 북경올림픽 행사 기간 중/행사기간 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과 관련한 정책이며 넷째, 민간사업자의 해외홍보활동지원 정책이다. 다섯째, 여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정책이며 여섯째, 관광숙박대책마련 정책이다.

### (1) 한·중·일 관광협력네트워크 개발 정책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협력 네트워크는 충청남도에서 새로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SEAN + 3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협력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기구이다. 이러한 협력기구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관광 협력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13개국의 관광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리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3국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커 보인다.

ASEAN + 3 관광협력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강원도나 대전에서 개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환태평양포럼이나 환황해포럼과 같이 각 국가별 인접 지역간 포럼을 발전시켜 관광협력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2) 충청권 관광협력네트워크 개발 정책

충청권의 권역관광개발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개 지역 통합 관광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통합 관광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권역관광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내의 15개 시군 지자체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의 주체로서도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 (3) 2008 북경올림픽 행사기간 중/행사기간 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스포츠를 소재로 한 메가이벤트는 개최국의 경제적인 효과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일종목으로선 세계 최대의 스포츠행사인 월드컵의 경우 대회를 치르면서 수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1978년 아르헨티나의 대회수익은 약 24백만달러, 1990년 이탈리아의 수익은 약 74백만달러, 2002년 한국·일본의 수익은 3억83백만달러로 급신장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올림픽의 파급효과를 보더라도 1988년 서울올림픽이 26억달러,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이 35억달러,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 65억달러 규모로 분석된다. 메가이벤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중 개최지역에서의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그동안의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2008북경올림픽의 행사기간중과 행사후의 북경의 소비진작 효과를 어떻게 한국, 특히 충청남도까지 이끌어내는가 하는 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관광시장에서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며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의 북경올림픽은 이러한 중국관광시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이 세계관광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관광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중국과의 연계관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키워드는 중국관광의 Inbound, Outbound 흐름파악, 한류를 활용한 관광이다.

강원도는 스포츠와 한류라는 테마를 잘 활용하여 중화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2006년 12.11일에서 14일까지의, 3박 4일간 홍콩의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여행전문지 등 8개 매체, 15명의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 용평의 펀스키페스티벌과 함께, 최근 중화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류 웰빙체험상품을 소개하는 강원관광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들 일행은 강원도지사배 스키/보드/썰매 대회 등 금번에 10주년을 맞이한 『06/07 펀스키페스티벌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메주와 첼리스트, 레일바이크, 여치카페, 어름치카페, 아우라지 처녀상 등 최근 중화권 (홍콩·대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선지역의 “한류 웰빙체험” 관광지들을 방문하고, 12. 8일 개장하는 강원랜드의 하이원 스키장과 스키전용열차도 체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동계관광상품으로서 올해로 이미 10년째에 접어드는 용평의 편스키페스티벌 (Fun Ski Festival)은 올해 12월 10부터 13일(3박4일간)까지, 1회차를 시작으로 '07년 3월 5일까지 7회차에 걸쳐 숙박과 스키강습, 스키대회, 만찬 등 스키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형 관광상품으로서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 올해부터는 그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모객 지역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까지 확대하여 6개국 33개 모객 여행사를 통해 10,700여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는 향후 이러한 이벤트형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본지역을 타겟으로 한 신규 스키이벤트상품 개발을 계획하는 한편, 편스키페스티벌 등의 관광상품의 중국 대륙시장 진출을 위해 청도와 서안 등의 언론인들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동계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 도정소식, 2006.12.9).

충청남도 역시 수정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4대 권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를 활용한 차별적인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면서 팸투어 등의 홍보활동에 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스포츠관광객이라는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전략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4) 민간사업자의 해외홍보활동 지원

성공적인 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역할은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해외의 관광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과 충청남도내의 민간사업자와 연결시켜주는 등의 역할로 민간사업자의 해외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북경올림픽과 연계한 여행업체들의 공동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고,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협력에 의한 공동해외홍보 활동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 사례가 될 것이다.

### (5) 여행사 인센티브제도 도입

다수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존의 방법을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고 업체들이 개발한 상품을 해외에 대신 홍보해 주는 역할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행업체와의 이러한 제휴관계는 외국인관광객 비율이 낮은 충청남도에는 중요하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6) 관광숙박 대책 마련

충청남도에서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시설 중에서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외국인들의 체험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숙박체험은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 팜스테이,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문화체험 숙박체험시설을 프로그램화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데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3) 관광홍보 분야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여 충청남도는 관광홍보 분야에서 두 가지 관광홍보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중국의 공동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둘째, 스포츠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충청남도 관광상품 홍보 전략을 구사하며, 셋째, 인터넷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한국-중국의 공동홍보 전략

메가이벤트 개최시 언론을 통한 광고효과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한·일

월드컵 개최로 인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코리아'와 '한국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행사의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차 그룹은 월드컵행사를 통해 일본 내 인지도가 2002년 2월 32%에서 6월에는 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LG 전자는 대회기간 중 한국, 프랑스, 러시아 등 3개국 월드컵 대표팀을 공식 후원하면서 이들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10%이상 상승된 것으로 분석하였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월드컵의 효과를 보았다.

북경올림픽은 중국, 북경, 중국의 기업에 2002년의 한국과 유사한 홍보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충청남도는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메가이벤트 개최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북경올림픽의 홍보효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북경올림픽의 주요 시장을 파악한 후에 충청남도 내에서 이러한 주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과 관광매력물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경올림픽의 주요 관광시장은 일본과 동남아 지역이 될 것이고 전통적 관광송출국인 미국과 유럽시장도 주요 잠재시장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공동홍보 등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 (2) 스포츠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충청남도 관광상품 홍보 전략

2008년 북경올림픽은 스포츠메가이벤트이며 주 관광객은 스포츠관광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도 관광상품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연구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스포츠관광객의 소비행동특성 중 흥미 있는 점은 숙박과 식사에 소비지출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또한 스포츠관광객들의 유형별 프로필을 분석하면 연령은 젊은 층이 많으며 사이코그래픽 분류상 참여형의 적극적이고 동적인 성향을 띤 관광객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고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상품과 음식상품을 개발, 정비하고 이러한 관광상품을 부각하여 대상 스포츠관광객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의 시드니올림픽에서도 나타났듯이 메가이벤트 이외의 다른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면 스포츠관광객들은 인근지역을 관광하거나 관광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청남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3) 인터넷 홍보 강화

북경올림픽 특수를 대비하여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인터넷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홍보의 내용적 측면은 주요 시장 지역별 외국인관광객을 감안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어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일본어, 중국어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4) 관광교통 분야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여 충청남도는 관광교통 분야에서 두 가지 관광교통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관광 접근로를 개발하고, 둘째, 한국-중국-일본 크루즈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1) 다양한 관광 접근로 개발과 홍보

충청남도의 관광협력네트워크는 관광교통분야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관광접근로는 항공로, 육로, 해로의 교통망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차원의 지원을 하는 전세기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인접지역의 항공로를 활용하여 일본, 중국과의 항공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환황해권 내에는 10개의 해상노선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11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고, 환황해권에서 관광지리적 범위는 항공교통의 발달로 1일여행권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역, 투자, 비즈니스, 물류, 관광 등을 포함하는 통합지역이 될 수 있다. 2008 북경올림픽은 이러한 환황해권 내의 관광교통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충청남도는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까지 연결해주는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충청남도가 한국의 중앙이라는 잇점을 부각시켜주는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한국 국가 경제 대동맥으로서 인천-목포간 주행시간을 이전의 7시간에서 4

시간으로 단축시키고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아산·대산항과 군산·목포항을 연계하고 있다.

고속도로 주변에 인천 남동, 시흥, 반월, 아산, 장군, 대불, 포승, 고대 등 대규모 공단과 수십 개의 중소공단이 가동되고 있거나 입주예정이다.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통로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계되며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경기지역과 서해안고속도로로 1시간거리에 충청남도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관광접근성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남북으로의 접근성은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좋은 반면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에서 당진까지의 32번 국도도 일부 개통되어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동서와 남북 도로망을 활용한 관광접근성을 부각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한국-중국-일본 크루즈 해양관광상품 개발

크루즈관광은 21세기 유망 관광사업 부문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크루즈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항 네트워크 (free port network)의 구축과 국가별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크루즈 관광코스를 위한 시설개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충청남도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제 6 장 결 론

2008년 북경올림픽은 중국이 올림픽 개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이며 인접국인 한국에게는 중국 못지않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방문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북경올림픽은 한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배경은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충청남도가 준비해야 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으며 세부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충청남도와 환황해권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대형이벤트의 파급효과와 스포츠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며, 셋째,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5가지 세부분야로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접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충청남도 산업현황, 충청남도 방문 외래관광객 현황, 충청남도 기반시설과 관광개발계획, 환황해권의 관광산업의 현황, 문제점, 과제 등이 분석되었으며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와 스포츠관광객의 특징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충청남도 대응방안이 두 개의 분야(다섯 개 세부분야)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충청남도 산업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충청남도 관광산업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충청남도 관광산업 대응방안은 다시 네 개의 분야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상품 개발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중국-일본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대전-충청북도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의 시군 지자체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여행사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충청남도의 특색있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이 제안되었다. 둘째, 관광정책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중국-일본 관광협력네트워크개발 정책, 충청남도-대전-충청북도 관광협력네트워크개발 정책, 2008 북경올림픽 행사기간 중/행사기간 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민간사업자의 해외홍보활동 지원, 여행사 인센티브제도 도입, 관광숙박 대책 마련이 제안되었다. 셋째, 관광홍보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중국의 공동홍보 전

략, 스포츠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충청남도 관광상품 홍보 전략, 인터넷 홍보 강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넷째, 관광교통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광 접근로 개발, 한국-중국-일본 크루즈 해양관광상품 개발 방안이 제안되었다.



## 참고문헌

- 강원도 도정소식 (2006.12.9). '홍콩언론인 펜스키페스티벌 및 한류웰빙체험 취재',  
[www.provin.gangwon.kr](http://www.provin.gangwon.k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6). [www.tour.go.kr/stat](http://www.tour.go.kr/stat)
- 김시중 (2001). '2008베이징올림픽 특수대비 충청남도 관광수용태세 확립방안', 2008년  
북경올림픽 특수대비 충남도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대전·충남  
행정학회.
- 김원배 외 (2000).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국토연구원.
- 민종기 (2001). '지역산업진흥과 대중국 특수대응전략', 2008년 북경올림픽 특수대비 충  
남도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대전·충남행정학회.
- 박근수 (2004). '레저산업', 「여가」, 일신사.
- 이인배 (2001).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한 충청남도 관광개발 대응방안', 2008년 북경올림  
픽 특수대비 충남도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대전·충남행정학회.
- 최정석 (2002). 「북경올림픽과 對中비즈니스기회」,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 충청남도 (2001).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 충청남도 (2006.12.),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
- 파이낸셜뉴스 (2002.6.30). '재계 포스트월드컵 대책 분주'.
- 한국경제신문 (2002.7.9). '월드컵 이익없는 비싼 파티'.
- Gibson, Willming, & Holdnak (2003). 'Small-scale event sport tourism: fans as  
tourists', 「Tourism Management」, vol 24(2), pp. 181-190.
- WTO (2000), <http://www.world-tourism.org>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근수 배재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발연 2006-08 ·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충청남도 대응방안**

글쓴이 · 박근수 · 이인배 · 강영주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6년 12월 31일 / 발행 · 2006년 12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301-745)  
전화 · 042-820-1170(문화관광연구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89552-97-0 93350  
<http://www.cdi.re.kr>

©2006.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